

연방대법 동성결혼 관련 심의 이번 주

DOMA 및 프로포지션8 관한 법적 검토 실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과 관련된 역사적인 심의를 이번 주에 실시한다. 최근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58%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라이프웨이리서치의 조사에서는 64%가 동성결혼 지지로 통계가 이뤄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11개월 전에 “동성결혼에 관한 나의 생각이 진화하고 있다”고 발표해 미국 역사상 최초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대통령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클레어 맥캐스킬 상원의원 등 민주당 측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줄줄이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심지어 공화당에서조차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부통령 후보로 거론됐던 롭 포트만 상원의원이 동성결혼을 지지한다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게이임을 커밍아웃 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심리하게 될 동성결혼 관련법은 2가지다. 첫째는 연방법인 결혼보호법(DOMA, Defense of Marriage Act)이다.

DOMA는 동성결혼자들이 이성결혼자와 동일한 연방법 상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이 과연 평등에 관한 수정헌법을 침해하느냐 문제다. 만약 수정헌법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 폐지될 경우, 가장 최우선적으로는 현

재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에서 동성결혼자들은 이성결혼자와 동일한 세금, 소셜시큐리티 연금, 이민 상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동성결혼자들이 이 혜택을 누리려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지 않은 주의 소위 ‘비공식 동성결혼자’들은 여전히 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이 문제가 동성결혼 지지자들에게 의해 평등권 문제로 또 다시 번지면 모든 주가 동성결혼 합법화의 압박에 처하게 된다.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DOMA 폐지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 다음은 캘리포니아의 동성결혼 금지발의안인 프로포지션8이다. 4년 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프로포지션8을 발의해 통과시켰지만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투쟁 끝에 지방법원은 이것이 위헌이라 판결했고 연방항소법원도 곧 이어 이를 받아들인 상황이다.

만약 연방대법원까지 이를 받아들이면 캘리포니아의 동성결혼 금지법은 위헌으로 인해 폐기되고 만다.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프로포지션8이 발의되기 전, 동성애의 메카로 불리는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시정의 주도 하에 동성결혼식과 증명서 발급이 이뤄진 바 있다. 프로포지션8이 폐기되면 그 다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미주겨레사랑 창립 = 북한 전체 어린이 중 25%가 발육저하, 5세 미만의 북한 어린이 중 45%가 영양실조로 발육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돕기 위한 단체 '미주겨레사랑'이 창립됐다. 미주겨레사랑은 21일 오후 옥스퍼드팔레스호텔에서 창립예배를 드리고,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데 헌신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단체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한 남가주 교계 인사들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INTERVIEW

“문화 격변의 시대... ‘교회만의 진실성’ 유지해야”

풀러신학교 신임 총장

마크 래버튼 박사 인터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동성애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풀러신학교 총장으로 취임하는 마크 래버튼(Mark Labberton) 박사는 “오늘날 서구 문화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이 전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시기는 지났다”고 말했다.

래버튼 박사는 본지와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기독교인들 사이에 동성애에 대한 재고가 이뤄지고 있으나,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우리는 기독교 전통에 따라 살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화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 성경에서 가르치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영혼들 안

의 실제적인 고통과 문제를 대함에 있어 과거와 같이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닌,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정치계 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인들의 64% 가량이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필연적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된 바 있다. 미국 내 동성애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인 이슈를 넘어,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실제적인 문제(matters)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래버튼 박사는 “지금 서구 교회는 교회를 둘러싼 문화가 가장 격변을 겪고 있을 때, 교회만의 진실성(완전한 상태)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있다. 현재와 과거의 기독교 전통은 동성애 행동을 지지하거나 긍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에 대해 래버튼 박사는 “한국교회와 선교활동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잘 알고 있다. 양쪽이 되도록 많은 면에서 서로 돕길 원하고, 한국교회로부터 배우는 데 있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현재 풀러신학교는 한국어로 된 목회학 박사 과정을 두고 있다.

오는 7월 1일 풀러신학교의 5대 총장으로 취임하는 래버튼 박사는 위트만칼리지를 졸업한 후,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 영국의 캠브리지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마크 래버튼 신임 총장

→ 3면에 계속
강해진 기자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 동참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자 >> 16면

김인수 전미주장신대 총장 '한국에 처음 온 기독교 성직자' >> 14면

♣ 바로 잡습니다

지난 3월 21일자 1면 '2013 부활절연합예배 지역별 일정' 기사중 LA지역 장소를 동양선교교회에서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로 바로잡습니다.

TAX 문제 전문 TAX HELP TEAM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 CLIENTS | RECENT CASES | RESULTS |
|----------------|------------------|-----------------------|
| K.Y.HWANG | IRS \$63,403.00 | \$6,331.41 (\$100/mo) |
| C.P.RESTAURANT | BOE \$69,300.00 | \$8,456.80 (\$500/mo) |
| N.D. INC. | EDD \$23,983.25 | \$0 |
| M. YIM | IRS \$137,22.49 | \$200/month |
| K.Y.KWON | IRS \$44,471.46 | \$0 |
| T. HAN | IRS \$735,661.94 | \$15,566.00 |

3250 Wilshire Bl. Ste 900, L.A. CA 90010 Tel. 213-248-0221
 1201 S. Beach Bl. Ste 106, La Habra, CA 90631 Tel. 562-943-1456

ASE 나라정비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교역자 10% 할인해 드립니다.

부 축 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세계성경장로교회
 World Bible Presbyterian Church

● 영구표어 : Soli Deo Gloria
 ● 교회목표 : 말씀전수와 세계선교
 ● 선교정책 : Vision153 세계선교(요21:11)

담임: 강신권 목사 (Rev. Paul Kang, Th.D, Ph.D)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8:00(한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한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00(영어)
 수요일예배 (수) 오후 7:30(한어)
 새벽예배 (월-토) 새벽 5:30

Tell, 1-424-257-8169 Cell, 1-562-761-5242
 Fax, 1-424-257-8170 drpaulkang@hotmail.com 17002 Prairie Avenue, Torrance, CA 90504

[100세 시대] “호 실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인교회의 차세대 사역은 어린이 뿐이던가?

바야흐로 100세 시대다. 한국은 물론 이민사회에도 노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 실버세대를 향한 교회의 막중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실버세대만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이 화제다.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실버드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가 바로 그것.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고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잠 20:29)”는 성경 구절에 근거해 동교회는 실버사역의 일환으로 지난해 이맘

때 실버드림대학을 창설했다. 이 대학을 맡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담임 교역자 서미수 전도사는 창설 취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경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는 구절을 비롯해 하나님께서 호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면서 “이에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 전 교역자,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호’를 실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르신들을 모신 버스가

교회 입구에 들어서면 교역자들이 인사로 맞이하는데, 그럼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신다”면서 “자녀 교육의 차원에서 교회 안에서 호를 가르치고 행할 때 ‘산 교육’이 된다”고도 덧붙였다.

실버드림대학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하자면, 이렇다.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오픈해 운영하고 있기에 꼭 동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60세 이상의 ‘실버’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실제로 전체 학생 수 90명 가운데 30퍼센트는 타교회 교인이다. 또 개종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넉크리스천 학생도 더러 있으니 그야말로 ‘열린 학교’다.

서 전도사는 “넉크리스천인 경우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수업에 앞서 경건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커리큘럼은 총 3년 과정으로 짜여져 있으며, 1년에 봄, 가을 학기로 나눠 운영된다.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졸업장도 수여한다. 올해도 지난 3월 7일부터 16주에 걸친 봄학기 일정이 시작됐다. 수준별 생활영어를 비롯 컴퓨터 기초반, 중급반, 바둑, 서

예, 수목화, 노래교실, 건강체조 등 9개 과목이 개설돼 있다.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경건예배에 이어 개인별 수강내역에 따라 지정된 교실에서 1,2교시 수업을 소화한 다음 12시 점심식사를 끝으로 그날 일정을 모두 마친다.

과목별 강사는 물론 식사 준비 등을 비롯한 봉사 전반에 걸쳐 동교회 교인 30여명 볼런티어로 참여하고 있다. 등록비는 매 학기 30불. 매년 교회 차원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 3만여불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굉장히 저렴한 편이다. 올해로 2년째 실버드림대학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지길준 집사는 “당초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한 대학인 만큼 이렇게 저렴한 학비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미수 전도사는 “학생수를 현재 9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실버’ 한 분 한 분에게 수준 높은 교육과 섬김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수업을 마친 뒤 식사시간이 되면 육체적으로 연약한 ‘실버’들을 배려해 봉사팀이 손수 국 그릇, 밥 그릇 하나 하나 일일이 정성스레 서빙한다고.

끝으로 그는 “차세대 라고 하면 보통 ‘아동’ 세대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들 실버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차세대”라면서 “나이 들면서 육적 건강뿐 아니라 영적 건강도 중요하다. 교회가 사회 전반적인 장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버세대를 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성순복음교회 산하 실버드림대학 100세 시대 맞아 실버 재교육에 투자 지역 커뮤니티 섬김 차원 저렴한 학비



나성순복음교회 실버드림대학 회원들이 서예활동을 하고 있다.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은 유전자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심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둘러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축 부 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 11:25-26)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어 지키는 예배 공동체

순복음의 새 역사를 만드는

나성순복음교회
LAFGC LA FULL GOSPEL CHURCH

담임목사: 진유철 Senior Pastor Rev. Yu Chul Chin
주소: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4102



Tel 323 - 913 - 4499
Fax 323 - 913 - 4494
www.lafgc.com
lafgcsa@yahoo.com

주일 대예배

1부
오전 7:45
본당

2부
오전 9:30
본당

3부 (열린예배)
오전 11:30
본당

4부
(조용기독교영상예배)
오후 1:30
권사회실

예배 모임

| | |
|----------------|--|
| 새벽예배 | 월 - 토 오전 5:30 / 본당 |
| 수요예배 | 수요일 오후 7:30 / 본당 |
| 금요예배 | 금요일 오후 7:30 / 본당 |
| 영아부 예배 (0-3세) | 주일 오전 9:30, 11:30 / 본당 영아부실 |
| 유치부 예배 (4-5세) | 주일 오전 09:30, 11:30 / 신 교육관 유치부실 |
| 유년부 예배 (1-5학년) | 주일 오전 09:30, 11:30 / 구 교육관 |
| | 금요일 오후 7:30 / 구 교육관 (AWANA) |
| WG 영어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09: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영어중고등부실 |
| JVT 한어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09: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한어중고등부실 |
| MIG 한어청년부 예배 | 주일 오후 2:00 / 본당 |
| EM 예배 | 주일 오전 11:30 / 신 교육관 3층 EM 예배실 |
| 실버드림대학 | 목요일 오전 9:00 / 구, 신 교육관 |
| 토요한글학교 | 토요일 오전 09:30 / 구 교육관 |

이은자 선교사, 아시아계 최초 NBC '올해의 커뮤니티 서비스상'

“한인 모두의 정성이 모인 결과... 더 겸손히 봉사할 것”



NBC-TV가 선정한 '올해의 커뮤니티 서비스상'을 수상하게 된 이은자 선교사.

미션아가페(대표 제임스 송) 부회장 이은자 선교사가 NBC-TV(채널 11)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커뮤니티 서비스상'을 수상하게 됐다. 시상식은 4월 23일 애크랜드 다운

타운 소재 메리엇 호텔에서 열리며, NBC TV로 방영될 예정이다. 이은자 선교사는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커뮤니티 봉사상에 선정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

기쁜 소식을 알려온 미션아가페 측은 “우리가 이곳 미국에서 한국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코리언 어메리칸으로 살면서 작지만 꾸준히 봉사해 온 것이 주류사회에 전달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상은 개인의 상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 해준 한인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앞으로 미션아가페는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겸손하고 성실히 봉사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델타항공에서 20년 넘게 근무해온 이은자 선교사는, 노숙자 구제 봉사단체인 미션아가페, 조지아 남부 클레이튼 카운티에서 노인들을 섬기는 러빙하트 창립 멤버이기도 하며, 한인회 부회장으로 섬기는 등 다양한 봉사로 한인사회뿐 아니라 미 주류 사회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07년 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사로 임명받기도 했다.

>>기사 1면으로부터 받음

이후 2009년 목회자 여성형성을 위한 미가 그룹(Micah Groups) 사역을 통해 풀러신학교 교수진에 합류했다. 풀러에 오기 전 레버튼 박사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제일장로교회에서 16년간 담임목사로 섬겼으며, 1990년대 초반 펜실베이니아주의 웨인장로교회에서도 담임목사를 맡았다. 그는 “풀러신학교의 모든 재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보다 깊이 자라나고, 어떤 사역을 하든 생각하고 말, 행동에 있어 이를 돌아볼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을 갖추길 바란다”며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을 원하는, 상처나고 결핍된 세상에서 필요한 지혜와 자질을 갖춘 사람들로 길러낼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교수로서 그 동안의 풀러에서의 사역을 되돌아본다면.

“먼저, 풀러신학교 총장이 된 것이 매우 흥분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풀러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온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곳이다. 풀러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깊은 영성과 신학적 헌신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세계 모든 사람들과도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 기독교 지도자들을 돕고, 도움이 필요한 세계에 차이(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큰 특권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인터뷰에서 “풀러의 최우선적인 과제에는 교회에 대한 헌신을 강화하고 세상의 이슈를 다루는 방법을 심화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말에서 의미한 바는 단순하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것에 대한 믿음과 동일한 진지함을 갖고,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취하고 세상의 필요들을 갖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는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받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신 것을 의미한다. 나는 풀러신학교 졸업생들이 전세계 교회들과 밀접히 연결돼, 지역에서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사랑하기를 바란다.”

-16년 이상 교회에서 담임목회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신학자로서 이러한 경험이 연구와 강의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나.

“나는 새로운 총장직에 대해 목회자·신학자, 혹은 신학자·목회자로서 접근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공적인 또는 사적인, 지식적인 또는 감정적인,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영향에 대해 생각한다. 기독교적 신앙은 고백하면서 또한 삶으로 사는 것이다. 양자 모두 필요하며, 이러한 실용적인 실제성은 전체 제작자의 일부분이다.”

-최근 기독교는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에서 동성애를 시민의 권리(인권)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사랑 문화에서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시대'는 대부분 지나갔다. 즉, 미국과 유럽에서 기독교인들의 관점이 전형적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관점이

됐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 동성애에 대한 관점은 재고되고, 논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서구 교회는 교회를 둘러싼 문화가 가장 격변을 겪고 있을 때, 교회만의 진실성(완전한 상태)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재와 과거의 기독교 전통은 동성애 행동을 지지하거나 긍정하지 않고 있다. 많은 서구 기독교인들은 이 모두를 다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풀러신학교는 학생과 목회자들, 교회 혹은 동문들과 이러한 대화에 참여하길 원한다. 동성애 이슈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 신학 공동체의 기준은 우리가 기독교 전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살도록 지도해 준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개인적인 고통의 원인이 되는 동성애에 대한 대화가 이뤄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풀러신학교에는 한국어 선교 목회학 박사 과정이 있을 만큼, 한국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세계 선교에 있어 한국교회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풀러신학교에서 우리 모두는 한국교회와 선교 활동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잘 알고 있다. 이는 또한 우리가 한국교회와 긴밀한 관계성을 가진 데 대해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는 이유이다. 가능한 한 서로 돕길 원하고, 한국교회로부터 배우는 데 있어 매우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강해진 기자

미주 겨레사랑 창립 “북한 어린이 우리 손으로 도울 것”

북한 전체 어린이 중 25%가 발육저하, 5세 미만의 북한 어린이 중 45%가 영양실조로 발육부진을 겪고 있는데, 이들을 돕기 위한 미주 겨레사랑이 창립됐다.

미주겨레사랑은 21일(목) 오후 7시 30분 옥스퍼드팔레스호텔에서 창립예배를 드리고, 북한 어린이를 돕는데 헌신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교계 인사들도 이 자리에 대거 참석해 단체 창립을 축하했다.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는 서신을 통해 “앞으로 이 단체를 통해 의약품, 영양제, 식량분유, 초등학교 양호실 등의 지원뿐 아니라 발달지체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북한과 전 세계에 전달되길 기대한다”며 “생명

돕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겨레사랑 한 박희민 목사는 “통일 시대를 앞두고 북한 어린이를 돕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많은 이들이 이웃을 섬기자면 부담을 느끼지만 이는 인간적인 계산법이다. 영적인 계산법은 나눌 때 풍성해진다.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를 한 민경엽 목사(OC교회 회장)는 “북한을 돕는 것에 있어서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도와야 한다는 방향성은 같다”며 “기도해야 함은 물론이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돕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굶주리고 영양실조 걸린 아동 위해 남가주 교계 인사들 팔 걷어

을 살리는 이 사역에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미주겨레사랑 이사장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는 “2012년 8월에 북한의 제약공장, 영양제 공장 등을 방문해 진로소, 빵 공장 등 각종 사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특히 보육원과 애육원을 방문해 어린이들을 만나면서 사랑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됐다. 사상은 물론 정치와 이념, 감정을 초월해 우선 도와야 함을 깨달았다”며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의 일들만 남아지길 소망한다. 첫 출발을 예배로 시작하게 돼 감사하다. 부디 많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설교를 한 김영길 목사(고문, 감사한인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기 하셨을 때에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아들을 죽게 하셔서 우리 향한 한량없는 사랑을 확증하셨다”며 “우리 북한 동포를 겨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북한 동포를 사랑해야 할 것이다. 그들을

이날 예배는 인사말씀 이종용 목사, 사회 고석찬 목사(이사, 남가주 사랑의교회 부목사), 대표기도 남성수 목사(이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성경봉독 박정식 장로(이사, 은혜한인교회), 설교 김영길 목사, 축도 한기형 목사(고문, 동산교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축하행사는 격려사 박희민 목사, 김영길 총장(이사, 한동대 총장), 축사 민경엽 목사, 이동원 목사, 사역동참한 종수 목사(남가주 이사장, 일반인 침례교회), 특별찬양 권영대 교수, 인사 임덕순 장로(회장, 감사한인교회), 기도 인도 이현준 목사(이사, 은혜선교회) 순으로 열렸다.

미주겨레사랑 사역으로는 기아 구제, 애육원 및 고아원 지원, 의료 제약사업, 건강증진 사역, 초등학교 양호실 설립지원, 발달지체장애아 지원, 산림 및 농업 기술지원 사역, 북한교회 지원 및 교류협력 사역 등이 있다.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는 경우 기도와 봉사를 비롯해 매월 1구좌 10달러 이상씩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다.

문의: (714) 670-9664

토마스 멩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진절하게 웃음으로 상점에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 (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미연속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약도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교육과 선교 제대로 하려면 문화 알아야



미주 한인사회와 교회에 매우 유익한 책이 번역되어 나왔다. 바로 주디스 링겐펠터(사진 왼쪽)와 서우드 링겐펠터 박사(오른쪽) 부부의 <타문화 사역과 교육(An Incarnational Model for Learning and Teaching, 기독교 문서선교회, 2013년 3월)>이다.

주디스 링겐펠터 박사는 바이올라 대학교 국제교육학 교수를 역임했고 서우드 링겐펠터 박사는 풀러신학교 수석부총장 및 문화인류학 교수를 역임했다.

이들 부부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을 지난 30년 동안 지도해 왔는데, 특히 여러 한국인 제자들이 목회와 선교, 신학교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문화와 교육의 문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 현장과 실제 경험을 통해 명쾌하게 풀어간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역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현지 지도자의 양성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책에서 저자는 현지인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문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교육자와 학생간에 신뢰가 생기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피력한다.

이 책은 서구 문화권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비서구 지역에서, 혹은 서구 지역내의 비서양 문화권 학교나 다문화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 집필됐다. 책은 서양과 동양의 교육의 차이를 쉽고 명쾌하게 알려주면서 타문화권에서 교육 사역을 할 때 양 방식의 장점을 시너지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서양 문화권에서는 교사의 책임을 주로 학업에 국한하지만, 비서구 문화권에서는 부모, 보호자, 상담자, 후원자의 역할까지 포함한다고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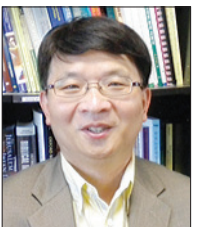
따라서, 제3세계 국가들에서 교육을 통해 봉사하거나 선교하는 사람들은 지식 전수뿐 아니라 학생들을 전 인적으로 돌보는 마음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교육의 방법이 있어서도 서

양에서는 언어적, 명제적 방식을 취하지만, 비서구 지역에서는 시각적 방식, 이야기 방식이 효과적이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에서의 중등학교 영어교사로서의 경험, 서태평양 섬에서의 현지 학교 교사 경험, 미국 일반대학교와 기독교 대학에서의 교육 등 다양한 문화 환경에서의 교육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타문화권 교육 현장 및 선교현장에서의 여러 문화적 장애물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극복 방안을 제시한다.

번역은 베데스다대학교 김만태 교수(연세대 영문학과, 풀러신학교 선교학 Ph.D.)가 맡았다. 이 책은 기독교 문서선교회(www.c1cbook.com)를 비롯한 각종 한

인 온라인 서적 사이트와 미국 내 한인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책을 번역한 베데스다대학교 김만태 교수

“성경의 하나님이 창조주... 과학적 검토 결과 확신”

물리학자 마이클 스트라우스 교수

신 존재의 과학적 증거 강연

오클라호마대학교 물리학과 마이클 스트라우스(Mike Strauss) 교수가 한국 지적설계연구원(회장 이승엽 서강대 교수)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신 존재의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 for the existence of god)라는 주제로 공개강연을 전했다. 21일 고려대학교 4.18기념관 대강당에서다.

마이클 스트라우스 교수는 “전 시대의 뉴턴, 파스칼은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크리스천이었는데, 과학자로서 기독교의 신을 믿는 것이 현 시대에도 해당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과 기독교 사이의 연관성을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과학적 증거들을 발견하게 됐다”고 전했다.

마이클 스트라우스 교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 ▲‘우주의 기원’ ▲‘우주의 설계’ ▲‘특이한 지구’ 세 가지를 제시했으며, 스티븐 호킹이 저서 「위대한 설계」에서 “우주에서의 또 다른 지구와 같은 별의 존재 가능성”을 주장한 것을 비판했다. 스티븐 호킹은 “빅뱅 이후 물 속의 거품과 같이 팽창하는 수많은 우주(다중우주)가 존재하며, 이 다중우주에서는 창조자의 개입이 없이도 우리와 같은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수없이 많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우주의 기원’과 관련, “1929년 에드윈 허블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우주의 팽창은

우주의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는 우주를 시작하게 한 신적 존재가 있다는 철학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오늘날 ‘빅뱅’이 우주의 시작이라는 것은 명확해졌는데, 그 증거로는 ▲‘우주의 팽창’ ▲‘우주의 온도’ ▲‘우주 내의 원소들’이 있다.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 우주의 한 지점을 허블망원경으로 비추면 은하계가 나타나는데, 이는 엄청나게 먼 곳으로부터 우주가 팽창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우주가 빅뱅에 의해 시작됐다면, 빅뱅 상태는 굉장히 온도가 높았을 것이고, 그 열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우주 어딘가에는 잔열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1964년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의 이방향성 전자파 탐지에 의해 증명됐다.

빅뱅이론이 예측했던 원소들의 백분율 역시 그대로 관측됐다. 과학자들도 빅뱅의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1970년대 스티븐 호킹은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에 근거하여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도 팽창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빅뱅은 공간만의 기원이 아니라, 시간의 기원이라는 것도 입증한 것이다.

결국 빅뱅은 폭발이라기보다는 우주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 시간, 물질, 에너지 등 모든 것의 기원이 된다. 이는 새로운 철학적 문제를 야기했는데, “과연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마이클 스트라우스 교수는 “우주의 시작 이전에 우주를 구

성하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았다. 우주의 원인은 우주를 초월해서 존재하며, 창조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우주는 분명 기원이 있으며, 그 기원이 있게 한 하나님이 계시다. 과학자 로버트 제스트로우드 ‘과학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했는데 이미 신학자들이 그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이미 성경에서 오래 전에 선언했던 것을 발견한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스트라우스 교수는 ‘우주의 설계’와 관련, “우주의 수많은 매개변수들은 모두 인간의 생존을 위한 최적의 조건으로 정확하게 조율되어 있다. 우주가 존재하는 물질의 양은 인간의 존재에 최적이다. 우주 팽창속도에 비해 물질이 적거나 많으면 은하계는 쉽게 붕괴된다”고 했다.

마이클 스트라우스 교수는 “물질은 원자로, 원자는 핵으로,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는 쿼크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소가 결합될 수 있는 것은 강한 핵력의 힘 때문이다. 하지만 이 힘이 5%만 약해져도 원소주기율표에서는 결국 수소(H)만 남게 된다. 물도 행성을 못하는 것”이라며 “우주를 구성하는 조건은 인간의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학자 폴 데이비스는 “우주는 짧은 시간 안에 급팽창했기 때문에 팽창하는 힘은 우주 안에 꼭 필요한 물질에 해당하는 만큼만 주어졌다”고 주장했었다.

지구가 속한 태양계는 나선형 은하에 속해 있는데, 은하계 중심의 블랙홀에는 방사선이 강하기 때문에, 인



마이클 스트라우스 교수가 강연을 전하고 있다.

간과 같은 고등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선형 은하에 속해야 한다. 그런데 나선형 은하는 은하계의 10%에 불과하다. 또 고등생명체의 생존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태양 주위에 다른 행성들이 돌며 불규칙하게 타게 되면 고등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 대부분의 별은 주위에 또 다른 행성이 돌고 있는데, 다행히 태양은 3세대 별로서 행성이 없다. 태양과 같은 3세대 별의 형성 기간은 140억 광년이다.

그 외에도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수많은 매개변수가 존재한다. 지구의 자전속도, 크기, 밀도, 자전축의 기울기 등 생각해야 한다. 지표의 판이 계속 활동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 지구의 기울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데는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목성은 중력이 강해서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이 지구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 수많은 매개변수들이 맞지 않으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다.

→ 10면에 계속

인디안 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당뇨병, 간기능 강화, 화상피부에 효능

미백효과
주름개선
노화방지
보습기능
유아들의 민감성 피부

Tel. 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는 6월 15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선교를 재촉하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8:1-8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감람산 꼭대기에서 두 천사가 예수님을 받들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육백여명의 제자들이 산꼭대기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곧 임하실 것이니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사도행전 1:10에서 천사들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쓰시겠다는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사도행전 2:1 이하에 보면 오순절이 이르렀고 제자들 20명이 함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자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설교 한 번에 삼천 명이나 회개하고 성령 받는 놀라운 부흥회가 이루어 졌었습니다. 그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 받은 무리들은 철철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오순절에 성령이 120 명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설교 한 번에 삼사천 명 혹은 오천명이 회개하면서 성령 받는 놀라운 교회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1.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선교

이방에 나가 살던 나그네 된 유대인들, 외국에 떠돌아다니며 장사하며 먹고 살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모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회개하고 성령 받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선교가 온 유대 땅을 정복하고 북쪽의 사마리아를 복음으로 점령하고 전 세계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복음을 선교하라고 모여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 터키, 그 외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보부상을 했었기에 그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었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식민지 생활로 그들의 가진 것들은 로마군대에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면서 그들은 의욕도 잃고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아가는 형편에 있었

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서 갑자기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엄청난 은혜를 받고 보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들의 심령이 용광로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들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을 차비를 빼고는 모두 사도들에게 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는 말씀을 속히 이루어지도록 선교기금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험뻏고 굶주린 생각만 하고 그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들을 나누어 구제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구제하는 일에 치우치다가 열두 사도가 그의 제자들을 불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행 6:2-4)고 말하고는 스데반을 비롯한 일곱 집사를 세우고는 그들은 기도와 말씀 선포에만 전적으로 힘쓰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 이적기사는 계속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양적으로 증가했고 더불어 많은 헌물과 헌금이 있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말하게 하시고 그를 믿고 회개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설교에 예수님의 죽음에 앞장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양심에 자각이 되어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만듭니다.

그는 성령이 시키시는 설교를 잘 한 덕분에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도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선교를 하지 아니하고 선교 밀천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압하고 먹이느라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소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훗날 바울이 되는 사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철퇴를 가하게 하십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곳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교회가 선교를 지독하게 할 생각을 안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철퇴를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에 기대하시는 선교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바깥 세력

에게 힘을 줘서 그 교회를 박해로 두들겨 패도록 만드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박해가 시작되니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처럼 죽지 않기 위해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19-21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유대도 도망간 사람, 사마리아로 도망간 사람들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받은 성령, 모시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법칙입니다. 하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 순교를 통한 선교의 재촉

선교는 영어로 미션(Mission)이라고 합니다. 미션의 본뜻은 사명입니다. 그것은 구원 얻은 성도, 성령 받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라는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갔다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 빌립의 하는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 즉 빌립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사람이라는 표적,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표적이 나타나도록 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 이적기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빌립이 말하는 것도 듣고, 나타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따랐으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다가 하면 또 많은 중풍병자, 앉은뱅이가 나음을 얻으니 빌립이 와서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2:1에 보면 그 때에 헤롯왕이 손

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가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 땅 사마리아에만 머물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땅 끝까지 전파되지 못하고 있어서 사도중 하나인 우리의 아들 야고보를 헤롯왕을 내세워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선교를 더 재촉하시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천국소망을 전하는 성도

예루살렘이나 로마, 어느 곳에 가셔든 교회가 부흥 성장하면 박해가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현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깨달아 회개하면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받은 그 시간부터 그 인생은 육신이 세상조건으로 평안할 살기를 기대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더라도 네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선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면 하나님이 또 박해를 당하게 하시어서 열심히 선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고 로마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네로 황제로부터 데시우스, 데우클레티안 황제 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괴롭힌 정치를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하고 깨달은 것으로 머물지 않고 열심히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었으니 세상 조건으로 슬퍼하거나 힘들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좋은 생각과 행복한 모습으로 생기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는 믿음, 구원의 확산, 천국소망을 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 한국 선교 설교 | | | | | |
|--|----------------------|-----------------|-----------|-----------|-----------------------|
| CBS TV | 목요일 오후 2시 10분 | CTS TV | 금요일 오전 6시 | | |
| 크리스천투데이 | 7면 설교 |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 | | |
| 경북기독신문 | 3면 설교 | 기도원연합신문 | 3면 설교 | | |
| 해외 선교 설교 | | | | | |
| COX TV 워싱턴DC | 화요일 오후 6시 | 목요일 낮 12시 | CTS TV | 수요일 | 서부 오후 3시반 / 동부 오후 6시반 |
| | 토요일 오전 7시 | 주일 오후 10시30분 | | 토요일 |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
|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 | | | |
| AMI310 기본소리방송 |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 미국 기독교일보 | 5면 설교문 | 온라인 칼럼설교 |
| AMI590 사카고 기독교방송 |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 | | 오프라인 칼럼설교 | 인터넷신문 설교문 |
|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애장중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교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 | | | | |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인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P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K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경회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E-mail, hjung3155@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7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화 목사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Fax: 310-609-1415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2013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4월 2일 2013년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기르자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요후 취업을 알선하며 정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k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윌셔 + 웨스트턴)

이민 110주년 기념성회 조용기 목사 초청해 열린다

내달 18일부터 21일까지 다채로운 행사 이어져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는 경축 성회 '로스앤젤레스 복음화대회'가 오는 4월 18일(목)부터 21일(일)까지 열린다.

올해는 주후 1903년 대한민국 이민자 조상들이 하와이 사랑 옥수수밭에서 농장 근로자로 고된 육체노동을 하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린지 1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번 성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세계총회, LA한인회가 주관하며 LA총영사관, 남가주한인목사회, 한인커뮤니티 단체협의회, LA교역자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후원한다. 대회 주강사로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길자연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증경총회장), 홍재철 목사(한기총 대표회장), 오관석 목사(기독교침례회 증경총회장) 등이 초청된다.

이번 성회 기간 중 행사는 크게 5개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영적대각성 일일부흥회가 오는 4월 18일(목) 오후 7시 30분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 원로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열린다. 이날 축사는 신효범 의원(워싱턴주 상원 부의장)이 하게 된다.

이어 19일(금) 오전 6시, 20일(토)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경축 성회 '로스앤젤레스 복음화대회'가 내달 18-21일 다채로운 행사들로 마련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LA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이영훈 목사를 초청해 열린 한인교와 히스패닉 연합부흥대성회의 모습.

오전 6시 주님의영광교회에서 통곡 새벽부흥회를 조용기 목사를 초청해 개최한다.

이어 19일 오후 7시 30분에는 만나교회에서 길자연 목사를 강사로 해서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경축 예배를 드린다. 이 행사에서는 안창호 선생의 장녀 안수산 여사, 서재필 선생의 손자 서동성 변호사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표창이 수여된다. 20일(토) 오전 11시에는 주님의영광교회에서 30쌍을 대상으로 홍재철 목사 주례 하에 다민족 합동결혼식이 열리며, 21일(일) 오후 7시에는 일서연합감리교

회에서는 10개 이상의 성가단이 참여하는 대성가 합창제가 열린다. 성가제에 앞서 열리는 예배에서는 오관석 목사가 설교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와 관련, 대회장에 김사무엘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 준비위원장인 지용덕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 고문에 임동선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목사), 박영창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 조천일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 등 여러 교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문의:(213)858-3781

청빙광고

교회 소개:
아름다운 도시 플로리다 올랜도에 위치한 올랜도제일장로교회 (http://orlandofirst.org)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꿈을 품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지역 사회와 2세 목회에 헌신하실 목사님을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M.Div 이상, 목사안수후 최소 3년 경과하신분(담임목사 경험 있으신분 우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하자가 없으신 분, 한국어와 영어로 설교가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하드카피 혹은 소프트카피):

- 자필이력서 (추천인 5인 성명, 관계 및 연락처 포함)
- 최종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사본
- 자기 소개서 및 가족 소개서 (가족 사진 포함)
- 목회 계획서 (목회 동기, 목회 철학, 목회 비전)
- 최근 설교 두편 녹화 CD 또는 파일

제출처 및 방법:

- 우편접수처:
First Korean Presby Church of Orlando (청빙위원회)
140 Lake Rose Dr., Orlando, FL 32835
- 이메일접수처 및 전화문의처:
FirstKoreanPresby@gmail.com
716-912-0747(주인근장로), 407-592-1614(박현환집사)
- 제출 시한: 2013년 4월 26일 도착분
- *우편제출 서류는 청빙절차 종료후 원하시는 경우 돌려드립니다.

성재복음선교교회, 김성광 목사 위임... '구원사역에 전력'

박병구 원로목사 추대 및 김성광 목사 위임예배 드려

성재복음선교교회에서 아름다운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성재복음선교교회는 24일(일) 오후 4시 본당에서 박병구 원로목사 추대 및 김성광 목사 위임예배를 드리고 새 출발을 알렸다.

이날 한국에서 축사를 보내온 황수원 목사(제 47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는 "본 교단 산하 해외 남가주노회 소속 성재복음선교교회는 박병구 목사님께서 광야같은 말바닥에서 개척해 오셨던 성대한 교회로 목회해 오셨다. 얼마 전 교회 성도님들의 정성 어린 총회회관 구입 헌금을 해주심에 매우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큰 역사를 이룬 것처럼 2대 담임 목사로 위임하는 김성광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홍이 목사(LA창대교회)는 축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은 혈통까지 초월하는 것"이라며 "두 분 목사님들, 이제 시작이다. 끝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심중에 새기고 복음 전파 사역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재복음선교교회에서 박병구 원로목사 추대 및 김성광 목사 위임예배가 드려졌다.

다"고 말했다. 원로목사로 추대된 박병구 목사는 답사에서 "김성광 목사님과 일면일식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담임목사님을 찾게 됐다. 앞으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답사를 한 김성광 담임목사는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담임목사로 위임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하 드린다"며 "이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길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사회 류당열 목사(남가주노회 노회장), 기도 김영배 목사(남가주노회 서기), 설교 김호 목사(남가주노회 임사부장), 서약, 공포, 축사 황수원 목사(대동 김상록 목사), 정홍이 목사, 권면 강부웅 목사(미주대한신학대학 총장), 답사 박병구 목사, 김성광 목사, 광고 최아름 목사(남가주노회 회의록 부서기), 축도 박병구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토마스 맹 기자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골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미국 한국여자선수들 대회마다 상위랭크, 양용은 동양인 최초 메이저 대회 우승, 최경주 미PGA서 꾸준한 성적. 귀하의 자녀도 이런 선수들 이상의 골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단 자녀의 잠재력을 보시고 골프를 가르쳐 보십시오. 우리나라 탑프로 95% 이상이 부모의 골프조기 교육 및 반 강제성의 권유에 의해서 발굴되었고, 타이거우즈 역시 만 5세부터 부모에 의해서 골프를 시작해 지금에 왔습니다.

골프를 하면 어린이 성장발육, 성격교정, 근력향상,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대상 : 7~11세 (K-TOWN 픽업가능)
- 모집인원 : 선착순 한정 모집
- 수업방법 : 주 2~3일

문의 : 310-598-0746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다운타운 스키드 로우 지역

홈리스 재활 통한 재기 목적

월드쉐어 미주법인이 다운타운 스키드 로우(Skid Row)지역의 홈리스들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1불 레스토랑'을 오픈한다. 22일 월드쉐어는 프로젝트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월드쉐어 미주법인 측은 "지난 2005년부터 거리에서 홈리스들을 위해 음식나눔 사역을 진행해 오다 지난 2010년 LA시 정책 변경으로 인해 거리에서 음식배급을 못하게 됨에 따라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았다"면서 "그러다 이번에 좋은 기회를 갖게 돼 그간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오던 소외당한 이들을 위한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열린 프로젝트 설명회에서는 코디네이터를 맡은 제임스 씨가 프리젠테이션을 했으며, 법인이사인 양운 목사가 기도를, 그리고 김희기 팀장이 레스토랑의 시작동기에 대해 설명했다.

김희기 팀장은 "이 레스토랑은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 주는 일반식당이 아니다. 소외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는 홈리스들에게 '소울푸드(영혼이 담긴 음식)'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잊고 있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고향을 생각하도록 하는데 쓰이는 귀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쉐어 미주법인이 내달 다운타운 홈리스들을 위한 1불 레스토랑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 프로젝트 설명회에서 코디네이터 제임스 씨가 오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코디네이터 제임스 씨는 "이곳 스키드 로우 지역에서 인근 레스토랑까지 가려면 최소 몇 블럭 이상을 걸어가야 하고, 가셔도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다. 심지어 어떤 여인은 15년 동안 제대로 된 식당 한번 가보지 못했다"며 1불 레스토랑이 존립해야 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으로 1불 레스토랑은 음식뿐만 아니라 직업을 잃은 이들에게 식당에서 일하는 경험을 쌓도록 도와주고, 이를 통해 식당 서비스 취업 등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월드쉐어 한 관계자는 "가장 큰 장점은 홈리스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음식에 대한 돈을 지불하고 당당하게 서비스를 받는데 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주는 음식을 받음으로써 받는 나쁜 느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

으며, 자신의 원하는 서비스를 위해 돈을 사용함으로써 무질서하고 나쁜 곳에 사용되는 물질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하지만 1불 레스토랑 오픈에 앞서 아직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월드쉐어 측은 "현재 장소만 준비되어 있는 상태여서 상업용 냉장고, 조리기구, 주방기구, 그릇 그리고 음식 후원과 함께 식당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서빙할 수 있는 볼런티어들을 모집하고 있다"며 한인커뮤니티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월드쉐어는 이 식당을 4월 중에 오픈하기를 기도하고 있으며, 모금을 위한 펀드레이징도 준비하고 있다. >문의: (213) 435-3489 토마스 맹 기자

그리스도께서 다시사심을 축하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4절)



예배및 모임안내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월-금) 5:30
(토) 6시

담임: 한상원 목사

웨스트 LA 한인교회

3840 Grand View Blvd. LA, CA 90066
T.(310)397-2741

예배및 모임안내

회장: 홍순헌 장로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981 S Western Ave #406, LA, CA 90006
T.(213)304-9191, (323)732-0191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대표: 김철민 장로

CMF선교원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562)483-0191, 714)493-0191, 562)684-4422

예배및 모임안내

1부 예배 오전 9:3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매일)오전 5:30

담임: 변영익 목사

벤엘장로교회

857 S La Brea Ave., LA, CA 90036
T.(323)937-1732 F.(323)931-2836

예배및 모임안내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EM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월-금) 5:30
(토) 6:00

담임: 최윤형 목사

세계선교교회

972 S Menlo Ave. LA, CA 90006
T.(213)388-1927, 388-2105

예배및 모임안내

1부 예배 오전 8:15
2부 예배 오전 10:00
3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월-금) 5:30
(토/주일) 6:00

담임: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38
T.(714)891-2029, 898-1069 F.(714)373-3097

예배및 모임안내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어린이/청소년모임
- 금요일 오후 7:30

담임: 김성민 목사

남가주 새소망 교회

1151 San Gabriel Blvd, Rosemead CA 91770
T.(626)872-6612

예배및 모임안내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찬양예배 오후 8:00
YOUTH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담임: 오정택 목사

웨스트레이크한인교회

2630-A Townsgate Rd, Westlake Village, CA 91361
T.(805)557-1122

예배및 모임안내

주일예배 오전 10:45
EM 영어예배 오후 12:45
금요 강해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오전 5:30
(토요일)오전 5:50

담임: 김민재 목사

예친교회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714)788-3677

예배및 모임안내

주일 1부예배 오전 8:40
주일 2부예배 오전 10:40
주일 3부예배 오후 1:40

담임: 조일구 목사

호놀룰루 한인장로교회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T.808-947-5252 F.808-947-5151

예배및 모임안내

1부 예배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3부 경배와찬양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담임: 조용철 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oad, Las Vegas, Nevada 89146
T. (702)579-7576 F.(702)257 9191 C.(702)296-9193

예배및 모임안내

1부주일예배 오전 9:00
2부주일예배 오전 11:00

담임: 이상훈 목사

성광장로교회

1359 W 24th St, Los Angeles, CA 90007
Tel.(323)-732-3440

예배및 모임안내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6:00

부목사 배기문, 이재현 목사
시무장로: 채류석 장로

담임: 정요한 목사

미주베델교회

158 S. Western Ave. #102 Los Angeles, CA 90004
T. 213-422-9191, Fax 213-465-5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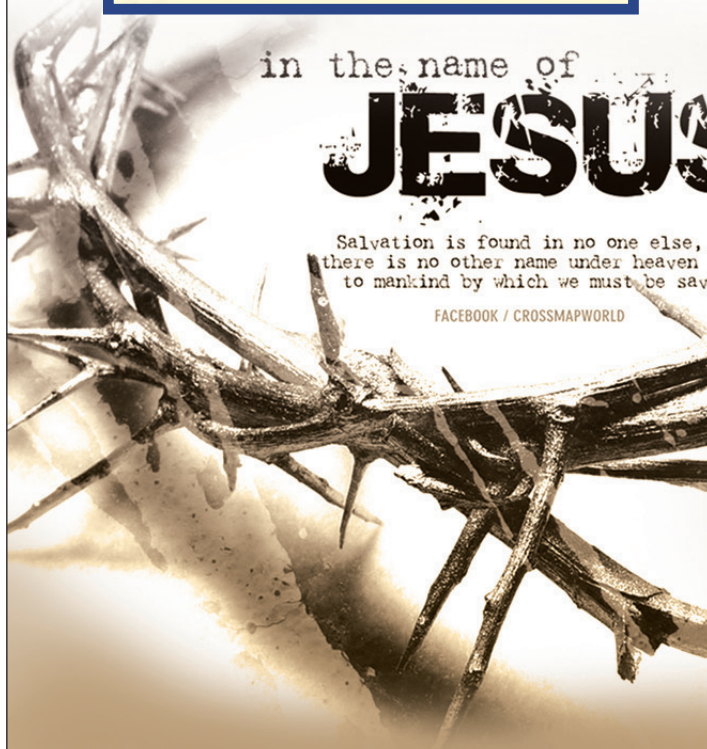
예배및 모임안내

1부예배 오전 9시
2부예배 오전 11시

담임: 김영빈 목사

세계비전교회

19514 Rinaldi Street Northridge CA 91326
T. 818-363-5887, 368-9881~2



in the name of
JESUS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ankind by which we must be saved.

FACEBOOK / CROSSMAPWORLD

예배및 모임안내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담임: 이종용 목사

코너스톤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el. 310-530-4040 Fax, 310-530-8400

대표: 데이빗 강

메디케어 헬스플랜 에이전트

T : 213-500-4563

월드비전, 조작 유지 쉽고 저렴한 플라스틱 펌프 제공



펌프를 설치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여성들

국제 기독교 구호단체인 월드비전(World Vision)은 10년 동안 전 세계의 물 부족 국가에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일을 해왔다. 월드비전은 작은 수동식 플라스틱 펌프를 통해 더 먼 곳에 있는 지역에 생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월드비전의 물·위생 전략가인 랜디 스트래쉬(Randy Strash)에 따르면, 작은 플라스틱 PVC 파이프와 PVC 부속품으로 구성된 이 펌프는 개당 25달러다. 이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스틸 펌프가 개당 700~800달러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싼 가격이다.

스트래쉬는 “이 같은 플라스틱 구조물은 영성해 보일 수 있지만, 유지를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도 약 5~7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이 펌프는 무게가 가볍고 작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무거운 장치보다 픽업 트럭이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이동하기가 쉽다. 그래서 손이 닿지 않는 공동체까지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펌프는 자연적인 유압식 기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작이 편리해서,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다.

스트래쉬는 펌프 조작이 쉽고 유지에 특별히 들어가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펌프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교육이 없어도 되고, 물 제공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펌프는 2008년 계획된 ‘워터4(Water4)’ 기술로 개발됐으며, 중앙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국가의 많은 나라들에 제공되면서 전 세계적인 물 부족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스트래쉬는 크리스천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월드비전은 개발도상국가들 가운데 새로운 플라스틱 펌프 개발을 돕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길 희망한다. 펌프가 확산되면 시장이 형성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지역 경제를 자극하는 동시에 깨끗한 물이 필요한 전 세계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물 부족 문제 해소 위해 노력

스탠포드 대학교는 지난 2000년대 수행했던 한 연구를 통해 신선한 물의 효율성과 물 제공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아이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발견한 바 있다.

연구에 따르면, 수원까지 한번에 가는 데 15분이 가까워질 때마다 설사의 유행이 41% 감소하고, 아이들의 영양 상태에 대한 지수가 개선되고, 5세 이하 영아 사망률이 11%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보고서는 “연구의 결과는 물을 제공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프리카의 물과 관련된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가장 우선 순위가 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스트래쉬가 언급한 바 대로, 수동식 플라스틱 펌프는 전통적으로 큰 장비가 맞지 않는 지역 공동체에 설치될 수 있으며, 공동체에 가깝기 때문에 수질 오염의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스트래쉬는 “새로운 펌프 사용에 따라,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환경적 조건이 더욱 나아지면서 풍부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직접 작물에 물을 주고 기르기 시작하면서, 1년에 걸쳐야 채들도 확보할 수 있다. 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많은 유익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월드비전은 ‘워터4’ 계획을 통해 에티오피아, 가나, 말리,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 새로운 펌프를 설치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영 성공회 신임 대주교 “여전히 전통적 결혼 지지”

일부 동성애자 동료들과의 친분 인정하면서도 확고한 입장 천명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

지난 21일(현지시각) 새로 취임한 영국 성공회 수장인 저스틴 웰비 주교(Justin Welby·57)가 “동성애자 동료들과의 강한 친분 때문에 이 문제에 깊은 도전을 받아 왔으나, 전통적 결혼에 대한 교회의 지지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BBC 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저스틴 웰비 주교는 일부 게이 동료들과의 친분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서로에 대한 사랑에 깊이 도전을 받았다고 전했다.

웰비 주교는 그러나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바꿀 계획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영국 교회는 이와 관련해 매우 확고하면서 지속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결혼은 한 여성과 남성의 일생에 걸친 연합이다. 동시에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중심은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2015년까지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영국 성공회와 영국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회적인 변화가 강요돼서는 안 된다. 또한 전통적인 결혼이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반대해 왔다.

많은 분석가들은 그러나 결혼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에 영국 또한 동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터뷰에서 웰비 주교는 “영국 성공회는 동성애 문제에 눈을 감지 않겠지만, 그들의 위치에서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같은 웰비 대주교의 입장은 전임자였던 로완 윌리엄스 대주교와 별반 다르지 않다. 로완 대주교 역시 전통적인 결혼을 지지하면서 동성애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교회의 더 나은 역할을 요구한 바 있다.

웰비 대주교는 또한 “이것이 예수의 삶과 성품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교회는 분명히 일들을 잘못 할 수 있고, 나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는 옳은 일을 더 많이 할 것이고 지금까지 그러했다”며 교회가 완벽하지 않고 실수할 수 있지만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선출된 로마 가톨릭 교회 프란치스코 교황은 웰비 주교에게 보낸 축하 서한을 통해 “양 교회가 좋은 관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웰비 대주교가 새로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나에게 임한 주님의 새로운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혜진 기자

아브디니 청문회 불참한 美 국무부 “귀 막고 침묵 중”



이란 출신 미국인 사에드 아브디니 목사가 지난 2012년 7월 이란 방문 당시 그의 부인 나흐메와 두 명의 자녀들과 함께 찍은 사진.

미국법과정의센터(The 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 줄여서 ACLJ)는 미 국무부가 지난 15일의회 청문회에서 사에드 아브디니(32·Saad Abedini) 목사 사건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아브디니 목사의 가족들을 대변하고 있는 미국법과정의센터는 “우리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국무부는 청문회에 단 한 사람도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렌트 프랭크(Trent Frank, 공화

종교·인권 박해에 대한 무관심 지적돼

당·애리조나) 의원은 아브디니 목사 사건과 관련해 “국무부가 귀를 막고 비겁하게 침묵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이란 당국으로부터 국가 안보위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아브디니 목사는 이란 테헤란에 위치한 교도소에서 8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오고 있다.

아브디니 목사의 구명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미국법과정의센터는 “그에게 적용된 실제적인 혐의는 이란 지하교회(가정교회)들을 도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존 케리(John Kerry) 국무장관은 앞서 이란 당국에 아브디니 목사의 석방을 요구했으나, 청문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미국법과정의센터는 무슬림 국가에서 많이 발생하는 기독교인 박

해 사건과 더불어 아브디니 목사에게 대해 발언할 계획이었다.

그의 아내인 나흐메는 청문회 이후 “사에드는 남편이자 자상한 아빠다. 아이들과 나는 그가 너무 그리다. 우리 아이들은 아빠를 곧 볼 수 있다는 희망을 붙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 공동의장인 프랭크 울프(Frank Wolf, 공화당) 의원은 청문회 이후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서 연락을 할 것이라고 했으나, 미국법과정의센터는 “이같은 대화가 이뤄졌다는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국법과정의센터는 “국무부는 의회 청문회에 아브디니 목사를 지지할 어느 누구도 보내지 않았다. 유엔(UN)에서 미국 대표단들은, 사에드 아브디니 목사를 언급한 유엔 보고서

에 대한 응답으로 이란의 인권 상황을 언급을 할 수 있었으나, 국무부는 이에 대해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프랭크 의원은 또한 의회 지도부에, 미 국무부가 한 달 전 양당에 발송된 문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일깨웠다. 이 문서에서 80명의 의원들과 대표들은 이란 출신 미국인 목사의 석방을 위한 행동을 촉구한 바 있다.

미국법과정의센터는 그러나, 청문회에 참석해 아브디니 목사를 지지해 준 의원들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 가운데에는 프랭크 울프 의원을 비롯해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공화당 뉴저지)의원, 수잔느 보나미치(Suzanne Bonamici, 민주당 오리곤)의원, 로버트 아더홀트(공화당 애틀랜타)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강혜진 기자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다!
Hallelujah! Jesus Christ has risen!

LA사랑의교회가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며
참 평화와 기쁨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예배안내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 대학청년부 오후 2시 22분
EM 오후 2시 평일새벽기도 오전 5시 20분 토 오전 6시 20분

사랑토요(한글)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20분

청소년대안고등학교 고등학교졸업장 / GED / 16-24세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975.1111 F 213.975.1100
(LA한인타운 → Beverly(1가)Blvd → 다운타운 방향 직진 → Beaudry 좌회전)

www.LASarang.com

축 부 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요 14 : 6)

토렌스제일장로교회

예배안내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예배 오전 9:30
3부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 수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 월~토요일 오전 6:00

이종민 목사

Tel. 310. 618. 2222
Fax. 310. 782. 0937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한빛지구촌교회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



한빛지구촌교회가 3월 25일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왼쪽부터 김홍 회장, 장세규 담임 목사, 송하경 집사 대표)

한빛지구촌교회(담임 장세규 목사)가 3월 25일(금) '파산보호(Chapter 11)'를 신청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위치한 한빛지구촌교회는 어린이와 성인을 합쳐 약 900명이 주일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대형교회다.

한빛지구촌교회는 파산보호 신청 직전인 당일 오후 2시에 기자 간담회를 열고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된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한빛지구촌교회는 2011년 11월 교회에 세들어 있던 세입자가 모두 나가자 월 2만 달러의 현금이 부족하게 됐다. 12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주채권자의 채무는 최근까지도 성실히 갚아왔지만 2012년 들어 후순위 채권자의 채무 중에서 약 17만 달러와 8만 달러에 해당하는 채무의 이자는 수 개월 동안 갚을 수가 없었다. 해당 채권자들은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교회는 채무 상환 처분을 받았다.

교회는 지난 1년간 소송 당사자들과 최선을 다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그들은 협상의 지는 보이지 않고 채권 중심(debt collection)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결국 2013년 2월에는 교회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권 중심이 진행됐다.

한빛지구촌교회는 주채권단과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교회를 적대적인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고 채무 조정과 건실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는 합의에 도달했다.

장세규 목사는 “지난 수년간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적인 섬김과 드림을 통해서 각종 용자와 모기지 채무를 성실히 상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긴박한 사정으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어 송구함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의 미숙함과 잘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까 싶어 두렵고 떨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회개와 기도로 주님앞에 엎드리고 있다”며, “법정관리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재정적으로 더 건실해지고 부채 상환 여력이 생겨 목회 사역과 선교 사역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이 확보되고, 보다 힘있게 교회 성장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주일(3월 24일) 제직회와 사무총회를 거치면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에 따라 즉시 전교인들과, 교회와 재정적인 이해가 걸린 모든 당사자들에게 법원으로부터 통보가 가게 된다. 법원의 통지가 집에 배달되더라도 놀라지 마시기를 부탁드린다. 이 통지는 한빛지구촌교회가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다는 사실 그 대로를 절차에 따라 알리는 것 뿐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교회의 모든 사역은 아무런 변화없이 진행된다. 같은 장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훈련받고 섬기고 전하는 모

든 일이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그동안 과중한 패이먼트로 인해 힘들었지만 법정관리 이후에는 성도들께서 드린 귀중한 헌금에서 보다 더 많은 부분이 목회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규 목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상당한 기간 채권자들과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법정관리 기간에 교회가 채무를 상환하고 건전한 채무 구조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생 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주채권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제출되는 '회생 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보다 건전한 재정 상태에서 채무를 상환하면서 교회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정관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교회의 어려움과 무거운 짐이 해결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당부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욱 큰 감사와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한빛지구촌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건물이 위치한 5.25에이커와 주차장이 일부 포함된 12.81에이커의 대지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주채권단과 교회측은 3년 전 감정액과 부동산 시장 침체를 고려해 9백만 달러로 생각했지만 지난 3월 20일 제출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18,730,000로 평가됐다. 평가액 증가로 인해 교회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법정관리 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법정관리 신청을 한 후에는 교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세규 목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번 법정관리 신청은 건물을 담보로 한 주채권단의 용지를 상환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채권단에 비해 소액인 후순위 채권자가 협상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주채권단 측에서 법정관리 절차가 교회에 유리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미 상당기간 월 상환액을 하향 조정할 의사를 분명히 해주었으며 이미 일부는 서면으로 재계약이 이뤄졌다”고 대답했다.

장세규 목사는 “가장 확실하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길은 교회가 건강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성장의 잠재력을 보여 주는 것이다. 특히 법정과 우호적인 채권단에게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에도 교인들의 출석이 줄지 않고 헌금이 변동이 없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며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이다. 주의 백성이 겸비하여 주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다”가 덧붙였다.

한기총 미주총회 '세계총회'로 명칭 변경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미주총회(대표회장 류당열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세계총회'로 정식 명칭을 변경했다. 한기총 미주총회는 17일 오후 4시 LA한인타운에 위치한 강남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류당열 대표회장은 “한기총 본부로부터 승인을 얻어 '세계총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다”며 “이는 전세계 각 나라 지부를 포괄하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의: (213) 858-3781

OC지역 부부동반 커피브레이크 모임, 오는 9일부터

오렌지카운티 지역 '부부 커피브레이크 모임(디렉터 이병문)'이 오는 9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남가주 동신교회(2505 Yorba Linda Blvd)에서 열린다. 주제는 요한1서다. 부부동반으로 진행되며, 현재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 중에 있다. 이병문 디렉터는 모임에 대해 “귀납적 성경공부와 복음 묵상 등을 통해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부가 함께 발견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디렉터는 “성경에 관심있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열린 마음으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고 기쁨으로 찬만해지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커피브레이크 성경공부는 교제 또는 성경을 토대로 함께하는 소그룹 참석자들과의 나눔과 대화를 통해 스스로 성경을 깨닫는 발견 학습을 중점으로 한다. >문의: (714) 742-7791



| | |
|---|--|
| <p>LA 지역</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p> <p>한현영 담임목사</p> <p>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p> | <p>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p> <p>강진웅 담임목사</p> <p>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p> <p>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
| <p>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말-토) 저녁 오후 7:30(화,목,금)</p> <p>엘리아 김 담임목사</p> <p>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p> | <p>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EM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p> <p>박현성 담임목사</p> <p>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p> <p>1925 Wilshire Blvd, LA / T.(213) 413-1600 / laopendoor.org 임시예배처소 3119W.6th LA, CA 90020</p> |
| <p>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진유철 담임목사</p> <p>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 <p>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p> <p>정우성 담임목사</p> <p>나성한인교회</p> <p>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p> |
| <p>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p> <p>김광삼 담임목사</p> <p>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 오전 6:30(말-금) 오전 10:30(수) 오전 6:30(토)</p> <p>정우성 담임목사</p> <p>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스하는 은혜공동체</p> <p>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213)598-0191</p> |
| <p>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p> <p>김요섭 담임목사</p> <p>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p> <p>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p> | <p>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p> <p>김성광 담임목사</p> <p>성재복음선교교회 은 성도가 사랑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에 가하는 교회</p> <p>3313 W. Pico Blvd, 2F # A, LA, CA 90019 T. (213) 327-9200, T. (213) 598-9932</p> |
| <p>17,27,37기 수료생배출, 현재4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약품이나기구없이 손안으로 각종질병치료하는 의술</p> <p>박승부 장로</p> <p>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p> <p>LA 2836 w 8th st #106 LA, CA, 90005 OC 부활교회 (아리랑 미켓 뒤) T. (213) 381-7273</p> | <p>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EM예배 오전 10:00</p> <p>조인수 담임목사</p> <p>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p> <p>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
| <p>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p> <p>김세환 담임목사</p> <p>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p> <p>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p> |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금) 오전 7:30(토)</p> <p>류종길 담임목사</p> <p>임마누엘선교교회 초대교회의가정모습,성경적으로노아,만민제사장교회</p> <p>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p> |
|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말-토)</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 <p>부설 : Naturo pathy Clinic(말-금) 진료문의 213) 505-7067</p> <p>대표 김갑선 목사</p> <p>지구촌 농업선교회</p> <p>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p> |
|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p> <p>이명수 담임목사</p> <p>청운교회 신교에 흠뻑, 소.초.진 초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 <p>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p> <p>정장수 담임목사</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마음, 몸, 열매</p> <p>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T. (213) 387-1700 F. (213) 381-2201</p> |
|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말-토)</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 <p>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p> <p>김세환 담임목사</p> <p>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p> <p>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p> |
|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강지원 담임목사</p> <p>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평이 있으며 신교와 전도하는 교회</p> <p>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 <p>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3부예배 오후 12:00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일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p> <p>김기섭 담임목사</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혼2를 극복하며, 이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와 영혼을 섬기는 교회</p> <p>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p> |

교회혁신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양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박해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치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마원철 담임목사

인랜드온누리교회
말씀에 뿌리내려 자라나며 열매맺는 은혜의공동체
9806 Arrow Rt., Rancho Cucamonga, CA 91730
T. (909) 945-9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유니 유아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선교를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 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주님과 사명을 뜨겁게 사명하여 섬기는 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r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중/고등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망글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의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문명(通)하여 민사형통함사!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5

장애우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 (A) 청년부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최상훈 담임목사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새교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월/우/일) 오후 7:45
오전 12:00 (본당)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성현경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나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LA비전교회 창립3주년 맞아 하나님께 감사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돼”



지난 24일 LA비전교회가 창립 3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딤후 3:15)
LA비전교회(김대준 목사)가 24일(일) 오후 4시에 창립 3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설교는 송정명 목사(미주평안교회, 월드미션대학교 총장)가 ‘우리 교회도..’(행 2:42-27)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송 목사는 “맞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저는 35년 동안 이민목회를 한 사람으로서, 이민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 목회자의 탐과 눈물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라며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다. 지금까지의 3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30년을 내다보고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 “지금 많은 신자들이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한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로, 말씀을 공부하는 교회였다.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는 LA비전교회가 돼야 열정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다”며 “많은 이민교회 성도들이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를 우선 순위에서 양보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감사예배는 사회 김대준 목사, 기도 구점식 목사, 설교 송정명 목사, 축도 김대준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LA비전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잡힌 신앙공동체의 영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 교회의 새벽기도회 시간은 월~금 오전 5시 30분, 토 6시, 주일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0분, 금요 찬양예배 오후 8시, 수요 성경 세미나는 오후 7시에 있다.

▷LA비전교회 주소: 520 lafayette park pl #200, I.A. CA 90057
▷홈페이지: www.lavisionchurch.com



제99차 국제전도자 세미나 = 재단법인 재아사랑선교회(대표 김영선 선교사)가 주최하는 제99차 국제전도자 세미나가 지난 23일 대흥장로교회(담임 권영국 목사)에서 개최됐다. 평소 전도에 관심 있는 평신도 리더 및 교역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영선 선교사가 주강사로 나섰다. 참석자들이 열린 강연에 귀 기울이고 있다.

“권능있는 전도자 되려면...” 김영선 선교사 강연

지난 23일 대흥장로교회(권영국 목사)에서 열린 제99차 국제전도자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주강사로 김영선 선교사는 전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성경에 근거해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예화를 곁들여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많은 이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모른다. 주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이시며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한 마지막 때에 무서운 재앙이 있음을 기억하고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와 입으로, 전도지 등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있다”면서 “세월을 아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애쓰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강연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이삼선 목사의 인도 하에 김건형 목사가 기도를, 권영국 목사가 설교했으며, 김충용 목사의 축도로 순서를 마쳤다.

» 기사 1면으로부터 이어짐

마이클 스트라우스 교수의 이 강연은 스티븐 호킹이 저서 ‘위대한 설계’에서 질문했던 ‘왜 무가 아니고 유인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왜 특정한 법칙들만 있고 다른 것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준다. ‘우주의 기원’, ‘특이한 지구’, ‘인간 중심의 지구’ 등이 그것이다. 그는 “322개 이상의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지구 같은 별을 발견할 확률은 거의 없다”며 “스티븐 호킹은 ‘지구 같은 별’의 존재 가능성을 말했지만,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스티븐 호킹이 ‘M-이론’으로 무한대에 가까운 개수의 우주 창조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행편없는 과학’이라며 비판했다. 이론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무경계상태에서 물리의 법칙이 작동한다면, 그 법칙을 또한 원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과학적 관찰은 우주 기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학자 폴 데이비스는 “물리학이 설계의 산물이라면 우주도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하며, 현대 물리학의 증거는 그 목적 가운데 인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를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자 조지 그린스타인 역시 “모든 증거를 조사해 볼 때 초자연적 존재 또는 절대적 존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든다”고 전했다.

마이클 스트라우스 교수는 “현대 과학이 발견한 것들은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의 실존에 대한 풍성한 증거를 말해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질의응답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Day)’의 의미는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의미상 ‘날’의 개념이 다양하게 쓰이듯이, 히브리 원어에도 ‘날’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아마 세상을 창조할 때 걸린 ‘오랜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새 시대, 새 시작의 선포로 여겨진다”고 했다.

“세상을 창조한 신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모든 종교 중 성경만이 유일하게 우주 창조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전하고 있다. 여러 과학적 사실들을 검토할 때 성경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한 다”고 밝혔다.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청소년들, '온실 속 화초' 아닌 들꽃처럼 피어나길...

예수님 마음으로 책임지기: 다니엘 김의 <철인>

참 반가운 책입니다. 2009년 12월, 뉴질랜드 유스코스타(Youth KO-STA)에서 다니엘 김 선교사와 함께 강사로 섬긴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 표지에 있는 철인 다니엘 김 | 규장 | 240쪽

책 표지에 있는 철인 다니엘 김 | 규장 | 240쪽 그가 말씀 사역자로 서기 전 하는 기도 모습입니다. 코스타 강사들은 그 시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가운데 두고 둥글게 서서 중보기도를 했는데, 한쪽 무릎을 꿇는 그의 모습이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모습이 이해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영혼에 목숨 걸고 전하는 그의 한 시간 한 시간을 보며, 목사인 내 모습을 많이 돌아봤던 기억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는 기독교 청소년들이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지 않고, '들꽃'으로 키우려는 말씀을 전하는 전방위 선교사입니다.

이 책에도 역시 그런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해 주세요"라는 요청에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긴급히 돌아오라!"는 세계관을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골 8:17)". 낙관주의에 빠져서 세상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조금만 연단이 와도 이길 수 없고, 고난 속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모세의 인생 120년이 애굽 왕궁 40년, 광야 40년, 출애굽 40년이었던 것처럼, 다니엘 김 선교사도 10년 한국, 10년 일본, 10년 미국이라는 다국적 성장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과정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다.

첫째, 말씀 앞에 서야 한다. 이제는 교회에 성경책도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며, 말씀을 향한 두려움과 완전하고 순정한 복음을 회복하고자 강조합니다.

둘째, 온전한 예배자로 준비되어야 한다. 익숙한 형태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떠나 새로운 삶의 현장에 서게 되었을 때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습관적이고 틀에 박힌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교제를 나누어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세상을 조율한 철인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 책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상을 감당치 못할 자들을 부르고 세우시는데, 그 부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무장된 '철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집이라고 느껴진 곳이 없을 정도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10살 때까지 한국에 살면서, 이모, 삼촌, 할머니 댁에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일본 야쿠자였던 아버지가 사 주신 일제 학용품 썼는데, 선생님은 매번 걸리는 그를 배짱 있는 놈이라고 때리셨고, 친구들은 '쪽박이 아들'이라고 놀렸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가게 되었는데 교문 앞에 있는 불량배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이, 조센진." 미국에 가면 관심을 줄 알았지만, 사관학교 입학식 날 처음 들은 말은 "검은 눈동자, 검은 머리카락의 이 더러운 동양 놈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다닐 때마다 이 찬양이 남다르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 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곳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그의 마음에는 미국 해병대에서 말하는 명언이 깊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The only easy day was yesterday(우리에게 유일하게 쉬었던 날은 어제밖에 없다)."

중국 대륙의 가난대 위치한 란저우에서 사족 국경을 갈 때 겪은 일입니다. 끝없는 사막이 펼쳐지는데 양떼들이 있더라. 글:이훈 목사

도대체 사막에서 뭘 먹고 사나? 그런데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양들이 기가 막히게 풀 한 포기 찾아 먹는 것을 보며, '사막의 양도 자기 먹을 것을 찾아 먹는구나. 이것이 생명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첫째, 개척교회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 하고, 둘째, 주님을 위해 투옥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셋째, 성경을 적어도 100독은 해야 합니다. 한 중국인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외우는데 궁급해서 몰랐습니다. "왜 그걸 다 외우세요?" "외워지는데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일로 17년 동안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수백 번 읽으니 외워졌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많은 핑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이유를 말하며 책임전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J.I. 페커가 한 말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이루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장 편안하고 안락해진다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거룩해지며,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뿐이다. 오직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인정 사정없는 죄와의 싸움, 잔인할 정도의 자기 부인,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강건함이 요구된다고 저자는 말하면서,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첫째, 말씀 앞에 서야 한다. 이제는 교회에 성경책도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며, 말씀을 향한 두려움과 완전하고 순정한 복음을 회복하고자 강조합니다.

둘째, 온전한 예배자로 준비되어야 한다. 익숙한 형태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떠나 새로운 삶의 현장에 서게 되었을 때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습관적이고 틀에 박힌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교제를 나누어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세상을 조율한 철인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 책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상을 감당치 못할 자들을 부르고 세우시는데, 그 부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무장된 '철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현실과 무관하게 즐거워하는 능력의 소유자(합 3:17-18),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는 예배자(마 10:28), 그 어떤 성취보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눅 10:20), 그 '철인'이 되자는 것이 저자의 마음입니다.

인쇄된 글로 대했지만, 뉴질랜드 해밀턴 집회 장소에서 들은 사자후(獅子吼)처럼 들렸습니다. 허름하고 넓은 창고에서 수백 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들었던 그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의 뜨거운 마음이 떠올라서 참 행복하게 일독했습니다. '철인'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가능한 것이기에 오늘도 그러한 인생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장년 뿐 아니라 청소년과 청년들도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분명 귀한 메시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장학단체 정보박람회 성황리 개최돼

대학 학자금 대출, 장학금 신청 노하우 전해

한인 학자금 및 장학단체 정보박람회가 21일(목) 오후 말씀새로운교회(김희창 목사)에서 장학금스페셜리스트인 김희창 박사와 인테그랄에듀케이션이 공동으로 주최해 열렸다.

한인 학자금 및 장학단체 정보박람회가 21일(목) 오후 말씀새로운교회(김희창 목사)에서 장학금스페셜리스트인 김희창 박사와 인테그랄에듀케이션이 공동으로 주최해 열렸다.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강사들은 △대학 학자금- a.대학 재정정보: Financial Aid-용자금 대처, 그랜트 받기 b.대학 재정 파일 FAFSA, CSS Profile 기록 노하우 c.학자금관련 세금 보고 유의사항-학자금 지원 등에 관한 핵심 이슈를 전

했다. 이어 △단체 장학금- a.한인 단체 장학정보 200여점 소개와 전시회 b.장학 신청 서류 작성 스트리 잡기 c.장학 에세이 핵심 7 포인트 잡기 등 각종 노하우를 전했다. 주최 측은 "이번 정보박람회에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했다"면서 "영락교회 장학금과 대사관, 김보 등 장학박람회를 통해 장학정보 사진을 찍고 자료집을 얻었으며, 신청 정보와 신청법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문의: (626) 862-3596(인테그랄에듀)

O.C./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뻑지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562-691-0691, FAX:562-691-0698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예배 오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박용덕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한아침년부예배 오후 1:00 **최성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EM/Youth예배 오후 12:00 오찬(6:00토)
AWANA 오후 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매월 마지막주)

늘푸른선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92806
T.(714)632-9191,9192 / missionway.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찬 6:00(토)
타이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999-9900 / visionc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손인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30분 성경공부 (화) 오후 8시30분 **방익수 담임목사**
중, 고등부 오후 3시 금요침야예배 오후 8시
침년부 오후 3시 한국학교 (토) 오전 10

사랑의방주교회
말씀을 믿고 믿음을 나눠 삶과 말씀으로 정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92620
T. (949)654-0191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본당) EM예배 오후 12:15 **김함양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미리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1:55 (미리본당) 새벽예배 오전 5:45 (화-금)
6:00(토)

세리토스장로교회
미리본당: 1571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미리본당 건너편)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본당)
T.562-677-7777, F.562-677-7778/ ilovepc.org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한중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열린예배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령강림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92604
T. (949)857-9425 / F. (949)857-9242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중, 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대학침년부 오후 1:30

얼바인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지 사른 담임목사**
오후 7:30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강림으로 온전케 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경학, 생애학,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인도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213) 291-5901 / (714) 833-2568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엄영민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아침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일 오전 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경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박세록 대표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목요일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주일목상예배 오후 2: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UBM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562-903-2600, Cell: 714-600-7700

김삼도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 (949) 305-3951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허기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일도 자녀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중보 저녁 8:00 분당

남가주잠실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미빙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100 구매시마다
미네랄 소금 1봉지
무료증정



HQ 구연산 사랑입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원산지 개선과
원산지 인증에
우수한
일파 구연산
\$50
ea + tax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프로모션 A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
or 오리지널 8병
\$280 ~~\$100~~ +tax

프로모션 B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
\$270 ~~\$100~~ +tax

프로모션 C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
\$280 ~~\$100~~ +tax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
ea + tax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신제품 출시 안내

HQ구연산을 원료 그대로 물에 타서 드시다 보면 치아가 염려되고 신맛으로 인해 꺼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캡슐 제품을 내 놓습니다. 구연산과 아사이베리, 마카, 과라나, 미국 야생 산삼 등을 넣어서 위장을 보호하며 보다 더 강력한 HQ구연산으로 선보일 것입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핀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기쁘게되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르니 나음.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르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오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감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과대학이나 약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기편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 하며 육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로
의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살아있는 자연' 캐나다 록키로 가자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지구촌 최고의 관광지

요 며칠 사이 작열하는 태양이 심상찮다. 어느 해보다도 무더운 불볕더위가 예상되는 올 여름날, 화사한 봄날, 선선한 가을날, 몸을 오슬오슬게 하는 겨울날을 한번에 체험할 수 있는 캐나다 록키산맥을 찾아보자.

그곳에는 자연이 이룬 모든 것이 있다. 각기 모양새가 다른 수많은 산에는 만년설이 쌓여있고 빙하가 두툼하게 덮여있어 있다. 바위 산자락을 둘러싼 이끼와 100피트가 넘는 침엽수림은 원시의 모습 그대로다.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 폭포수가 되고 폭포수는 3백여개의 크고 작은 호수를 이룬다. 무지개보다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호수에 비친 쪽빛 하늘과 하얀 물계구름은 이색적인 록키만의 자연풍광을 연출한다. 눈 가는 곳 모두 사진에서 봐오던 눈부신 대자연의 모습 그대로다. 록키산맥은 멕시코에서 알래스카까지 남북으로 장장 3천 마일을 뻗어 있는 북미대륙 중서부 지역의 거대한 산줄기이다.

이 중 캐나다의 앨버타 주 남서부 산줄기는 록키의 진수로 손꼽히는데 만년설 덮인 바위산들과 산 중의 크고 작은 호수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일생에 꼭 한번 가봐야 할 50곳' 중 하나로 꼽힐 만큼 그 아름다움이 탁월한 곳이다.

록키산맥과 로렌시아산맥, 셀커크산맥 등 풍성한 대자연으로 둘러싸인 캐나다는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지구촌 최고의 관광지'라고 일컬어진다. 현대문명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면서도 자연을 처음 그대로의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어 자연과 문명의 조화가 인상적이다.

특히 록키산맥은 천혜의 비경을 지

닌 곳이 많아 밴프, 제스퍼, 요호, 쿠틀리 등 4개의 국립공원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한 마리의 곤충, 한 포기 꽃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보호되기에 야생동물이 호텔 근처로 내려와 음식을 주워 먹는 게 너무도 당연히 여겨질 정도다.

▶캐나다 록키의 국립공원

밴프국립공원(Banff National Park)

세계 10대 절경으로 꼽히며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록된 루이즈 호수를 품고 있는 밴프국립공원은 1885년 지정된 캐나다의 첫 국립공원이며 전세계 3번째 국립공원이다.

밴프국립공원의 중심도시인 밴프는 매년 7백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밴프가 유명세를 타게 된 건 한 의사가 이곳 유헤온천 물치료 효과에 대해 발표하면서이다.

록키에는 3곳의 이름난 온천이 있는데 제스퍼의 마이엇온천, 비시 주의 라디움온천 그리고 밴프의 어퍼온천이다. 어퍼온천 옆 곤돌라를 타고 설파산 정상에 오르면 빼어난 전망을 즐길 수 있으며 성인 키만한 송어를 낚을 수 있는 미네완카 호수, 레프팅을 즐길 수 있는 보우 강 등 즐길거리가 넘친다.

밴프는 마블린 먼로가 출연한 영화 <돌아오지 않는 강>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캐나다 록키의 보석'으로 불리는 밴프국립공원의 명소 중 가장 빛나는 곳은 두말할 것 없이 루이즈 호수다. 록키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방문객이 많은 곳으로, 빙하물에 깎인 바위가 녹아 들어 에머랄드 물빛을 지닌 이 호수

는 '한번 보면 평생 잊지 못하는 호수'란 영예로운 애칭을 갖고 있다.

원주민들은 '작은 물고기 호수'라고 불렀으며, 캐나다 총독 론 후작이 호수 풍경에 넋을 잃은 아내의 이름을 따 루이즈라고 명명했다고 한다.

제스퍼국립공원(Jasper National Park)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제스퍼국립공원은 밴프와 함께 캐나다의 양대 국립공원으로 불리운다. 밴프에 비해 인구나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지만 역사는 오히려 더 길다.

초기에 캐나다로 건너온 유럽인들은 원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 모피를 구하려 노력했다. 그 당시 유럽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모피는 금광만큼이나 큰 부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모피상들은 직접 원주민을 찾아 다녔고 공식적으로 이 지역에 처음 도착한 유럽인은 제스퍼 호우스였다. 그의 이름은 훗날 국립공원의 이름이 됐다.

제스퍼국립공원은 최고봉인 컬럼비아산(12,375피트)을 비롯해 차운, 로브슨, 에디스캐벨, 앨버타, 키치너, 애서베스카 등 빙하로 덮인 1만피트 고봉들이 늘어진 험준한 산악지대로 사람의 접근이 힘들었다.

1911년 이곳에 철도가 개통되고 기차역에 다운타운이 형성되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게 됐다. 꼭 둘러봐야 할 곳은 이 지역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휘슬러 산'과 '인디언 리지'다. 휘슬러 산은 제스퍼 인근에서 접근이 쉽고 풍경이 빼어난 곳으로 케이블카가 있어 힘들이지 않고 오를 수 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산 정상으로 오

는 동안 땅바닥에 바삭 얽드린 채 꽃을 피운 야생화가 만발한 초원지대 등 캐나다 록키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정상에 오르면 커다란 돌무덤 하나와 해시계 모양의 나침반을 볼 수 있다. 인디언 리지에 오르려면 휘슬러 산에 올라야 한다. 두 발로 걸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인디언 리지가 목적지라면 케이블카를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휘슬러 산으로 오르는 3시간 산행으로 지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쪽에 길게 뻗어있는 멀린 연봉과 풀린 연봉 외에도 애서베스카 강과 맑은 호수들, 그리고 제스퍼 다운타운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호수의 왕이라 불리는 멀린 호수 역시 방문하지 않으면 후회로 남을 만큼 빼어난 곳이다.

유람선이나 쾌속선을 타고 둘러볼 수 있으며, 호수의 중심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록키의 절경을 보게 된다면 오랫동안 그 감동을 지우기 힘들 것이다.

요호국립공원(Yoho National Park)

요호는 '굉장한 곳'이란 뜻을 지닌 원주민들의 말이다. 개밭이 철저히 제한된 태고적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순수하고 신비로운 곳이 요호국립공원이다. 약 30만 에이커의 방대한 산지에 걸쳐 있으며 1886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만년 빙하가 녹아서 흘러내리는 낙차 1300피트의 타카카우 폭포는 최고의 관광 명소로 폭포수가 만들어내는 굉음은 대자연의 웅대한 힘을 실감하게 해준다. 빙하가 녹은 물로 형성된 에머랄드 호수와 오후라 호수에서 카누를 타거나 호수 주변을 산책할 수 있다.

쿠틀리국립공원(Kootenay National Park)

쿠틀리국립공원은 밴프국립공원, 요호국립공원과 인접하고 록키산맥의 서사면을 지나는 밴프-윈더미어 고속도로 양쪽으로 펼쳐져 있다. 야생동물의 천국으로 알려진 이곳은 쿠틀리강과 버밀리언강이 공원을 뚫고 흐르고 있어 레프팅 등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지니고 있다.

1만 피트가 넘는 스탠리산과 포스터산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공원 남서쪽 입구에는 라돔온천이 있다. 쿠틀리란 원주민어로 '낮선 사람'이란 뜻의 쿠틀리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기사제공 : US이쭈투어 >



캐나다 록키의 하이лай트로 잘 알려진 신비의 빙하호수 '루이즈 호수(Lake Louise)'.



Korea
Be Inspired

30주년 기념, 아주투어가 준비한 신년맞이 봄맞이 모국 힐링투어!
모국의 숨겨진 아름다움과 특별한 내고향 향토음식, 구수하고 해박한 지식의 가이드 3박자를 모두 갖춘 구성입니다. 어릴적 그 모습! 그 옛 일상으로 지친 몸과 마음까지 치유하는 내 고향으로의 멋지고 맛있는 여행길로 초대합니다. 아주투어의 모국 힐링투어로 이만생활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문경제재/단양팔경
추억여행 4일 \$399
맛자랑! 맛자랑! 출발 ▶ 매주 화

문경드라마 세트장/옛길 박물관
문경새재 추억속으로

청남대, 문의문화재단지, 선병국 가옥, 정이품송 소나무, 도담삼봉, 원주 한지테마파크, 이천 도자기마을, 수원화성, 화성행궁

서해투어 조인 가능

진해벚꽃 축제여행 3일 \$199
30주년 특가! \$249-7
단 1회! 출발 ▶ 4/2

수령 80년이 넘는 빛나무와 38만여 그루의 빛나무
진해 벚꽃 관광

남원 광한루, 중원로타리, 여좌천, 해군기지사령부

동해투어 조인 가능




관광의길 30년! 아주관광이 새로운 30년을 아주투어로 시작합니다!

US이쭈투어

213-388-4000
833 S. Western Ave #35-A, L.A., CA 90005

LIFE IS TRAVEL

한국에 처음 온 기독교 성직자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임진왜란의 발발

한국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선교되기 전, 기독교 성직자 한 사람이 한국을 다녀간 일이 있었다. 그가 한국에 와서 전도하고 신자가 생겨났다면 그것이 한국교회의 시작일 터이다. 최초 기독교 성직자가 한국에 다녀간 때는 단군 이래 가장 비극적인 전쟁 중 하나였던 임진왜란 때이다. 일본 열도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한국 정벌의 허황된 꿈을 꾸면서 1592년 임진년에 약 16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조선 침략에 나선다. 전후 7년에 걸친 대 전란 속에 조선은 치명적 상처를 입었고, 무수한 군민(軍民)이 처참하게 도륙되는 참상이 이어졌다. 농지는 피폐했고, 농민은 왜란 전

의 1/3에 불과했으며, 기근과 질병으로 무수한 인민이 쓰러졌다. 경북공과 불국사가 소실됐고, 전주 사고(史麻) 이외 모든 사고가 불타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서적과 예술품들이 파괴, 약탈당하는 수난을 겪었다.

이 전쟁의 참상을 묘사한 함석헌 선생의 <천으로 본 한국역사>에 보면 “취하고 포식(餓飮)한 명나라 군인(明兵) 한 명이 노상에서 구토하매 사람들이 서로 달려들어 다투어 주워 먹고, 약한 자는 그것도 못 얻어먹고 호곡하였다”는 이 한마디 말 속에 당시 참상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한지 20일도 못되어 한양을 점령하고, 평양을 거쳐 함경도까지 북상하였다.

▶가톨릭 성직자 세스페데스의 내한

조선에 상륙한 왜장 중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이 있었는데, 그는 아구스티노라는 영세명을 가진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그의 휘하 군인 중에는 적지 않은 가톨릭 신자들이 있었다. 가톨릭의 성례 일곱 가지 중, 종부(終傳)성사가 있다. 종부성사는 가톨릭 신자가 죽자 직전에 신부에게 그동안의 죄를 고백하고, 사죄의 선언을 들은 후, 영성체(성찬의 떡을 받는 것)를 해야만 천국으로 가

는 중요한 성례이다. 만약 종부성사를 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연옥(煉獄)으로 가게 된다. 따라서 종부성사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천국과 연옥의 갈림길이 된다. 성사(聖事)는 신부만이 집례 할 수 있으므로 전장에서 전사하는 가톨릭 군인들을 위해서는 종군 신부가 필수적이다. 소서행장은 자기 휘하 가톨릭 신자들을 위해 종군신부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일본 관주장 고메즈(P. Gomez)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고메즈는 스페인 출신 신부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Gregorio de Cespedes) 신부를 조선에 파송하였다. 따라서 세스페데스 신부는 반만년 배달겨래 역사에 이 땅을 처음으로 밟은 기독교 성직자가 된다.

▶세스페데스의 사역

세스페데스는 1551년 스페인의 마드리드(Madrid)에서 태어나 18세에 예수회에 입단하였고, 인도 고아(Goa) 지방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중 신부로 서품됐다. 그 후 그는 일본으로 선교지를 옮겨 활발한 선교 사역을 하여 100여명에게 영세를 베풀었고, 그의 뛰어난 일본어 구사 능력은 많은 일본인들에게 호감을 주었다. 아울러 그는 고위층들과 사교의 범위를 넓혔는데, 그 중 소서행장도 끼어

있었다. 세스페데스는 조선에 입국해 소서행장이 머물고 있던 곱개성(城)(현재 경남 진해시 웅천동(熊川洞)에 도착하였는데 이때가 1593년 12월이었다.

세스페데스가 조선에서 수행한 일은 종군 신부의 일상적인 사역인 미사 집례, 고해 성사를 받는 일, 그리고 임종 직전의 병사들을 위한 종부(終傳)성사 집례였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그가 조선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느냐이다. 그러나 이 일을 입증할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그가 머물렀던 곳은 일본군 진영이었고, 일본군 진영 근처에는 조선 사람들이 소개(疏開)되어 조선인이 없었다. 또한 그는 조선말을 전혀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내한 목적도 전도는 아니었다. 온갖 약행을 자행했던 집략군과 더불어 들어온 서양인의 전도를 받아들일 조선인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한국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몇 개월 뒤 일본으로 귀환했다. 그 이유는 불교 신자 장군들의 천주교 보급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세스페데스가 몇 개월 머물다 간 경남 웅천은 한국 개신교의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朱基徹) 목사의 고향이다. 점령군과 함께 한국에 처음 온 기

독교 성직자의 지취가 남아 있는 그 곳에서 일제시대 때 신앙적 항일 투쟁을 하다 거룩한 순교의 피를 흘린 주기철 목사가 태어난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기독교 성직자로는 최초로 한국 땅을 밟은 세스페데스는 한국에서 선교의 흔적을 남기지 못했지만 일본에 돌아간 후에 인질로 잡혀온 5만여명에 이르는 한국인들을 위한 훌륭한 일을 수행했다.

일본은 전비(戰費) 조달을 위해 노예상인들에게 이들을 팔아 넘겼는데, 세스페데스는 이러한 비인간적인 만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는 이들 포로들을 위해 한국어로 교리서를 번역하고 가르쳐 2천여명을 개종시켰고, 방향의 한을 품은 이들에게 영혼의 안식을 제공했다.

미국땅에서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인 한국인 신자 21명이 덕천가강(德川家康)의 기독교 박해시 순교했다. 그들 중 9명은 1867년 205명의 일본인 순교복자 시복(溢福) 시, 그 중에 포함되었다. 한국의 가톨릭 선교 가능성은 모든 문물이 그렸던 것같이 중국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음에 중국을 통해 전래되는 한국 천주교회의 모습을 더듬어보기로 한다.

(계속)

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다섯째 지팡이



이학진 장로
사랑의빛선교회

지난 주까지 성경의 통독과 이해를 위해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수립, 언약의 갱신, 그리고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나누어 성경전체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구약을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의 4부로 나누어서 각론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모세 오경(율법서): 모세 오경이란 모세가 쓴 다섯권의 율법책(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을 말합니다. 이를 세페르 하토라(율법책, 신 31:26, 수 1:8, 느 8:8, 등) 또는 하토라(율법, 느 8:7,

등)라고 하는데 이 토라는 교훈이나 법을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역사서의 시작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가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출 17:14, 24:4, 민 33:1-2, 신 31:9). 그리고 모세오경의 기록 연대는 왕상 6:1에 근거하여 출애굽 연대를 BC 1446년으로 보고, 그 후 40년이 지난 BC 1406년(모세의 죽음)까지를 창세부터 기록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창세론이며,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론도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과 모세오경의 기록 없이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흐름 속에서만 그 의미를 갖게 합니다. 만일 아담이 선악과 사건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특별히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오경은 다음의 세 가지 면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첫째는 구속사적 통일성입니다. 하나님께

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기독교 신앙의 구속사적인 관점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으로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모세 오경은 그 주제나 용어나 사상에 있어서 통일성을 나타내고 나머지 성경의 뿌리가 되었으며,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규례를 지켰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실행으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려는가를 보여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는다는 주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반복되며(창 13:14-17, 15:4-5, 17:7-8, 17:16, 18:18). 그의 자손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속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창 26:2-4, 28:13-14, 48:1-6), 출애굽의 이야기에서 강조되고 있으며(출 6:6-8) 모세 오경의 끝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반복됩니다(신 34:1-4).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택하셔서 언약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은 전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선교의

목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셋째로 모세오경은 미완성의 책입니다. 창 1-11장의 족장 이전 시대에 초기의 인류 일반 역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한 부분적(시초적)인 대답(하나님나라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은 모세 오경 안에 나오지만 그 전체적(궁극적)인 대답은 모세오경과 구약을 넘어서서 신약에 나타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행위를 통해서만이 창세기 1-11장이 제기하는 문제(하나님 백성의 회복)에 대해 궁극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틀이 되는 율법의 임시성과 불완전성은 신약 말씀의 영원성(머울의 갈라디아서 3:23-24 말씀) 그리고 완전성(예수님의 마태복음 5:17-18 말씀)과 비교가 되지만 이 율법의 기초 위에 말씀이 서야 하는 명제는 반드시 이해되어야 합니다.

모세 오경은 다섯 권의 책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창세에서 모세의 죽음까지의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모세 오경의 범위를 살펴보면, 창세기는 아담에서 이스라엘

의 족장까지의 인류 초기의 역사(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족장 역사를 언급하며,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이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며,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조직이 율법적인 규범(제사법, 제사장, 성막)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군대 및 정치적 조직(12 지파의 세력)을 서술하고 있으며, 신명기는 역사와 율법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각과 표현을 모세의 연설에 담은 권고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면(시간적인 흐름)에서의 모세오경의 개요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창 1-50장), 출애굽하여 시내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3개월동안, 출 1-19장), 시내 산에서 진을 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10개월 동안, 출 20장-민 10:10),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38년간, 민 10:11-21장),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민 22장-신 34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맹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213) 402 - 5136 / E-mail : chdailylife@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김인호 CPA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State Filing)
비영리 허가취득(IRS, FTB)
By-Laws, Minutes, Mission Statements
교회 재정보고서(Financial Statements) 작성
교회 재정 및 행정 Internal Control 상담
교회 재정 소프트웨어 Quickbook, PowerChurch 설치 교육
교역자 및 직원 세무상담
Payroll Services

562-467-1114
certioscpa@gmail.com

Cerritos Accountancy Corporation
17215 Studebaker Road #150
Cerritos, CA 90703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산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정정안내 : Sports Mission College를 American Sports University 로 잘 못 게재 됨을 정정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차별화된 전문인 선교와 목회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_jacob601@hotmail.com
- 주소 : 3240 Wilshire Blvd., #250 Los Angeles, CA 90010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회 중회장 황수원목사, 중장 강부용 박사, 재단 이사장 류당열 목사

우리 자녀들과 나라 망치는 “차별금지법” 학부모들과 교육자들, 국민 대다수는 반대합니다!

국민여러분,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이 “우리 자녀들과 나라를 망치는 차별금지법”을 3건이나 발의한 것을 아십니까?

망국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한 김재연, 김한길, 최원식 의원 공동발의한 66명의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전원 사퇴하라!

전국의 학부모들과 교육자들은 ‘전국유권자연맹’을 결성하여,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의원과 정당에 대해 이번 ‘4.24 보궐선거’와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서 지지를 철회한다! 이 법안의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과 정당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 또는 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적체성,...이유로...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이번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차별금지가 아니라 독소 조항인 아래 내용들을 합법화, 정당화하는 법안입니다.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 를 외치도록 조장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국회의원들이 김일성 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하고, 김일성주체사상을 교육하며 선전하고, 반국가적 행위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대한 찬양도 인정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인가? 이는 국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국회와 중요공직에서 자유롭게 적화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김일성주체사상과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독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억압하고 처벌하게 하는 반국가적인 악법입니다!

성적지향(동성애), 성적체성(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

동성애법이 통과된 미국 메사추세츠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 성행위(항문성교)를 가르쳤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 성행위를 함께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교육해야 하며 동성애자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양산될 것입니다. 법으로 통과된 동성애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현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으며 후천적 환경 요인을 통해 학습, 개발됩니다. 동성애에 대한 문화적 노출이 많은 도시의 청소년들은 시골의 청소년들에 비해 동성애자 비율이 훨씬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자녀들을 입양해서 키우겠다고 합니다. ‘남자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가 과연 행복할까요? 게이들의 평균수명 일반인보다 25-30년 짧음. AIDS 감염률 100배 이상, 청소년 자살률 4배이상, 암발병률 2배.

전과(前科)에 대한 차별금지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자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차별금지이고, 인권입니까? 간첩죄와 반국가적 범죄자들이 전향하지 않은 채 국회 나 국가 중요공직에 임용되는 것이 차별금지입니까? 이런 차별금지가 어린 학생들의 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 질서 유지, 국가 안보보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나라를 무너뜨리고 어린 학생을 인권과 국민 대다수의 인권을 위협하는 교묘한 차별금지법에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국민 무시하고, 몰래 발의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의원들의 ‘공산당식 기습 발의’

국가의 중요한 법안들은 철저한 검증과 공청회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의원들끼리만 모여 몰래 발의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국가의 법질서를 짓밟고 다수의 국민을 무시하는 ‘공산당식 기습 발의’ 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되는 건전한 비판을 범죄로 취급하며 국민의 바른 말할 권리를 심각하게 탄압합니다. 결국은 우리 자녀들을 망치고 국가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처벌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는 ‘방어리 국민’을 만들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망치고, 나라 망치는 차별금지법 주장 말고, 굶어죽고 얼어죽고 맞아죽는 북한 동포들과 짐승처럼 팔려다니는 탈북자들 인권을 위한 ‘북한인권법’ 통과시켜라!

【 법안 발의한 66명, 민주통합당 59명, 통합진보당 6명, 진보정의당 1명 의원들의 명단 / 지역구 공개 】

| 이름 | 지역구 | 정당 | 이름 | 지역구 | 정당 | 이름 | 지역구 | 정당 | 이름 | 지역구 | 정당 | 이름 | 지역구 | 정당 | 이름 | 지역구 | 정당 |
|-----|---------|-------|-----|---------|-------|-----|--------|-------|-----|--------|-------|-----|----------|-------|-----|--------|-------|
| 김광진 | 비례대표 | 민주통합당 | 김현미 | 고양 일산서 | 민주통합당 | 배기운 | 나주 화순군 | 민주통합당 | 유성엽 | 전북 정읍 | 민주통합당 | 전정희 | 전북 익산 | 민주통합당 | 한명숙 | 비례대표 | 민주통합당 |
| 김동철 | 광주 광산갑 | 민주통합당 | 남인순 | 비례대표 | 민주통합당 | 배재정 | 비례대표 | 민주통합당 | 윤관석 | 인천 남동 | 민주통합당 | 정성호 | 경기 양주동두천 | 민주통합당 | 홍의락 | 비례대표 | 민주통합당 |
| 김민기 | 경기 용인을 | 민주통합당 | 노영민 | 청주 흥덕을 | 민주통합당 | 부좌현 | 안산 단원을 | 민주통합당 | 이낙연 | 담양함평군영 | 민주통합당 | 정청래 | 서울 마포을 | 민주통합당 | 홍종학 | 비례대표 | 민주통합당 |
| 김성곤 | 전남 여수갑 | 민주통합당 | 노웅래 | 서울 마포갑 | 민주통합당 | 서영교 | 서울 중랑갑 | 민주통합당 | 이상직 | 전주 완산을 | 민주통합당 | 정호준 | 서울 중구 | 민주통합당 | 황주홍 | 창종강진영암 | 민주통합당 |
| 김영록 | 해남원도진도 | 민주통합당 | 도중환 | 비례대표 | 민주통합당 | 설훈 | 부천 원미 | 민주통합당 | 이연주 | 경기 광명 | 민주통합당 | 조정식 | 경기 시흥 | 민주통합당 | 김미희 | 성남 중원구 | 통합진보당 |
| 김영환 | 경기 안산상록 | 민주통합당 | 문병호 | 인천 부평갑 | 민주통합당 | 신경민 | 서울 영등포 | 민주통합당 | 이원욱 | 경기 화성 | 민주통합당 | 주승용 | 전남 여수 | 민주통합당 | 김선동 | 순천 곡성군 | 통합진보당 |
| 김용익 | 비례대표 | 민주통합당 | 문재인 | 부산 사상 | 민주통합당 | 신장용 | 경기 수원 | 민주통합당 | 이인영 | 서울 구로갑 | 민주통합당 | 진성준 | 비례대표 | 민주통합당 | 김재연 | 비례대표 | 통합진보당 |
| 김윤덕 | 전주 완산갑 | 민주통합당 | 문희상 | 경기 의정부갑 | 민주통합당 | 안민석 | 경기 오산 | 민주통합당 | 이찬열 | 경기 수원갑 | 민주통합당 | 최중익 | 비례대표 | 민주통합당 | 오병운 | 광주 서구 | 통합진보당 |
| 김재윤 | 제주 서귀포 | 민주통합당 | 민병두 | 서울 동대문을 | 민주통합당 | 우원식 | 서울 노원 | 민주통합당 | 이춘석 | 전북 익산갑 | 민주통합당 | 최민희 | 비례대표 | 민주통합당 | 이상규 | 서울 관악 | 통합진보당 |
| 김진표 | 경기 수원정 | 민주통합당 | 박병석 | 대전 서구갑 | 민주통합당 | 우윤근 | 광양 구례군 | 민주통합당 | 임수경 | 비례대표 | 민주통합당 | 최원식 | 인천 계양 | 민주통합당 | 이석기 | 비례대표 | 통합진보당 |
| 김한길 | 서울 광진갑 | 민주통합당 | 박영선 | 서울 구로 | 민주통합당 | 유대운 | 서울 강북 | 민주통합당 | 장하나 | 비례대표 | 민주통합당 | 추미애 | 서울 광진 | 민주통합당 | 심상정 | 고양 덕양갑 | 진보정의당 |

차별금지법안을 상정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10명의 위원들에게 이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알리고 항의합니다.

| 이름 | 연락처 | 정당 | 이름 | 연락처 | 정당 | 이름 | 연락처 | 정당 | 이름 | 연락처 | 정당 |
|-----|-------------|------|-----|-------------|------|-----|-------------|-------|-----|-------------|-------|
| 권성동 | 02-784-3396 | 새누리당 | 김학용 | 02-784-3860 | 새누리당 | 이춘석 | 02-784-3285 | 민주통합당 | 최원식 | 02-784-9792 | 민주정의당 |
| 이주영 | 02-784-5282 | 새누리당 | 김희선 | 02-784-5680 | 새누리당 | 박범계 | 02-784-6960 | 민주통합당 | 서기호 | 02-784-4591 | 진보정의당 |
| 김도읍 | 02-784-1740 | 새누리당 | | | | 전해철 | 02-784-8902 | 민주통합당 | | | |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대] 전국유권자연맹,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교사연대, 밝은인터넷,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시민단체 일동 참여단체 : 국민화합연구소, 국제평생교육원, 국제사회교육원, 기독교사회책임, 나라사랑불교청년회, 나라사랑시민연대, 나라사랑학부모회, 대학생동일연대, 나라사랑어머니회, 동성애상담협회,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교육교사연합회, 바른교육실천운동연합, 바른문화운동시민운동, 바른사회를위한학부모연합, 바른생활학부모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밝은사회어머니회, 밝은인터넷, 새벽나라, 서울시민행동, 서울지역푸른어머니회, 선민네트워크, 성중독예방운동, 여성인권세우기, 자유대학지킴이국민운동본부, 자유민주통일추진협의회, 자유와복지포럼, 자유사랑청년연합, 자유통일산악회, 자유통일인권협의회, 자유정의진리의회, 전국교육자협의회, 전국유권자연맹,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참희망서울시민연합, 한국성경협회, 한국사립학교법인연합회, 한국참정경찰유공자회, 한국카톨릭애국청년회, 함께하는사회연합, 희망서울2012, CBMC강남비전지회 등 241개 시민단체.
* 우리 자녀들과 조국의 앞날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후원계좌 : 국민 012501-04-224763 차경화(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문 의 : 4student@daum.net / 070-4040-6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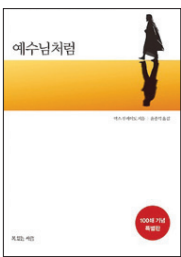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예수님처럼(100쇄 기념 특별판)
맥스 루케이도 | 북있는사람 | 278쪽

<예수님처럼> 100쇄를 기념하여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책들로 구성된 '미니북 시리즈'를 펴내게 됐다. 작고 가벼워 휴대하기에 간편하면서도 가독성을 잘 살려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전 모습 그대로 살아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동시에 도전을 주는 책이다.



성도들이 알아야 할 영적 전투
강도현 지음 | 콰란 출판 | 172쪽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이 성경 공부와 신학 훈련을 통해 이성적 지식에는 충실하지만, 영적 지식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영적 세계의 본질을 살피고 영적인 실재들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으로, 하나님과 살아 있는 관계를 누리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다.



요나 유감
이재호 지음 | 콰란 출판 | 208쪽

이 책은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에게, 등을 돌린 채 떠나갔던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책이 요나를 위해 준비하셨던 고기 뱃속이 되어, 읽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가 사명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반드시 치유되는 우울증
최영식 지음 | 콰란 출판 | 160쪽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생명력 있게 지내야 하는 시절을 우울증으로 인해 어떻게 보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저자가,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쓴 책이다. 무엇보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알려 주고 있다.



REVIEW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 동참하는 마음으로... '읽어 보자'

켄 가이어의 피에타 묵상 <십자가를 바라보라> 등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이다. 출판계 신간을 중심으로, 고난주간 동안 읽을 만한 책들을 골라봤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로 느껴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켄 가이어의 묵상집 <십자가를 바라보라(아드폰테스)>는 독특한 구성으로 흥미를 끈다. 미켈란젤로의 그 유명한 석상 '피에타'를 각도를 달리 해 찍은 사진으로 바라보면서, 저자가 느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담담히 써내려간 글이다.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무릎 위에 안고 애도하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을 일컫는 '피에타'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주권에 영혼으로 복종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지난해 김기덕 감독이 만든 동명의 영화가 황금사자상을 받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유명해졌다. 특히 영화 포스터에서 두 주연배우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을 재현하기도 했다.

'십자가에 의해 빚어지는(Shaped by the Cross)'이라는 원제의 책에서 켄 가이어는 미켈란젤로가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를 조각하면서 가졌던 열정을 전해들면서, "미켈란젤로의 열정이 이 정도였으니 우리를 조각

하는 하나님의 열정은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손수 작업하시는 작품이다. 그분은 해가 뜨고 질 때까지 격정적으로 우리를 조각하신다. 우리가 완성될 형상에 대한 생각으로 그분의 마음을 들끓는다. 미켈란젤로가 대리석만 생각했듯, 하나님도 우리만 생각하신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는 듯' 위에서 아래를 향해 찍은 사진에서는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느끼며 특별한 감상에 젖는다.

"그리스도는 당당하게 서 계시지 않고 여인의 무릎에 생기 없이 누워 계신다. 어의(御衣)를 입고 계신 것도

아니다. 겨우 작은 천으로 몸을 가리고 게실 뿐이다. ... 십자가는 '자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태양계에 일대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을 일으킨다. 공전하고 있는 '내 인생'이라는 작은 별은 지난날 내가 상상했고 지금도 간간이 상상하는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다. 예

수님이 중심이다. 중심축은 십자가이다. 우주 전체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는 여느 왕의 모습과도 다르고, 심지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나 <모세>와도 다른, 힘없는 예수의 모습을 통해 "스스로의 욕심을 채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포르테
세종 송보감

세종바이오텍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식약청 공인)

"참추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 KFDA공인 건강기능식품
- 1박스(1개월분) 195볼 ■1박스(3개월분) 360볼

Biotech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세종 오로청보감 **세종 뇌보감 골드** **진짜 발효삼? 진짜 발효삼**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캡슐로 만든 발효삼"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Tel.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 (미주복음방송국4층)

WIN HYUNDAI at El Mon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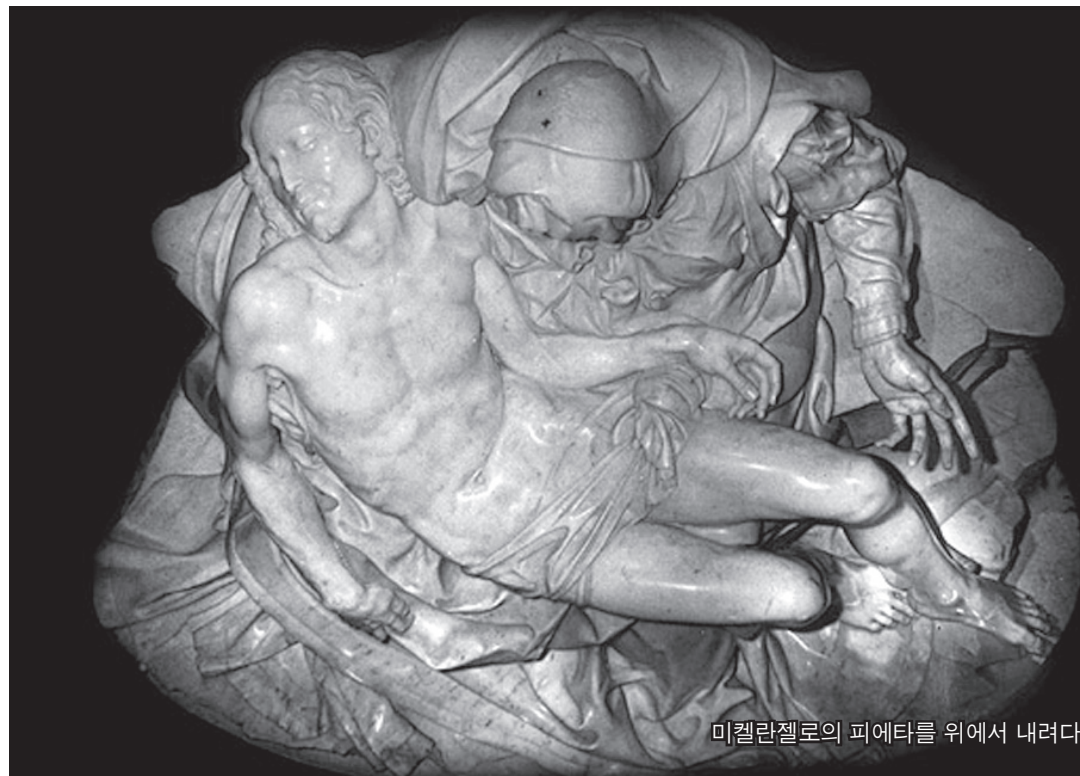
| | | | |
|--|---|--|---|
| <p>EQUUS SIGNATURE 2013 5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4,9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1,0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8,399 Term...36 Miles per Year...12,000</p> <p>\$499 Lease per month plus tax</p> | <p>SONATA GLS 2013 5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2,6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5,599 Term...36 Miles per Year...12,000</p> <p>\$109 Lease per month plus tax</p> | <p>ELANTRA GLS 2013 5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1,7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Total Drive off...\$3,199 Term...24 Miles per Year...12,000</p> <p>\$99 Lease per month plus tax</p> | <p>ACCENT GLS M/T 2013 VIN# NDU423702</p>  <p>Cash Out of Pocket...\$2,8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Lease Cash...\$500 Total Drive off...\$4,299 Term...36 Miles per Year...12,000</p> <p>\$89 Lease per month plus tax</p> |
|--|---|--|---|

한인담당 Alex Shin
www.winhyundai.com
El Monte

-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 환영
-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
- 최고의 가격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미고 말씀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이 행사는 4월10일 까지입니다.
Assurance
Tel. 888.409.3002

Special APR based on 36 month financing. Based on above average credit, must finance with HMF to qualify.
HYUNDAI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3462 N. Peck Road, El Monte, CA 91731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하다. ©아드폰테스 제공

‘피에타’ 보며, 고난에 대해 서술

우주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움직여

버려야할것 놓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것 권유

금식..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에 대한 굶주림

우고, 자신을 의지하고, 제멋대로 행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보존하고 자랑하는 모든 자아에 대해 죽은 자의 형상”을 본다.

조명이 비취 마치 ‘땀방울이 송골 송골’ 맺혀 있는 듯한 예수님의 무겁게 젖혀진 고개에서 ‘목울대(Adam’s apple)’를 발견해내기도 했다. ‘마지막 아담’의 목에 걸려있는 아담의 ‘그 열매’ 말이다. “그 후로 우리는 계속 그 열매를 향해 손을 뻗고 있다.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탓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그분의 상처에 책임이 있다.”

책을 출간한 아드폰테스에서는 맥

자가는 그 둘이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그 자녀들을 용서하시는 곳”이라고 말한다.

루케이도는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명패, 함께 달린 두 죄인의 십자가, 벗겨진 당신의 옷과 찢긴 당신의 몸, 수의와 빈 무덤 등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모두가 “당신을 위해 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버리신 것들을 열거한 뒤, 우리에게도 “뭔가를 내려놓지 않겠는가”라고 묻는다.

그리고 나쁜 습관과 나빴던 순간,

다. 존 파이퍼는 사순절과 고난주간이면 성도들이 한 끼쯤은 하게 되는 금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금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다. 금식하면 속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당신의 내면이 보일 것이다. 비로소 우리는 내 영혼의 자원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금식은 믿음의 굶주린 시녀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향수에서 비롯된다”며 이러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굶주린 마음’은 자기부인과 방종의 위험 사이에 있는 ‘즐거움 고통의 길’이자,

로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새 포도주’가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금식”이라고 강조한다. “우리의 금식이 간절함 이유는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포도주를 맛본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성령을 통해 아주 놀랍게 맛보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금식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엡 3:19)에 대한 굶주림이다.’ 이럴 때 금식은 ‘잔치가 될 수 있다.’

추천사를 쓴 <지옥은 없다>의 프랜시스 찬과 <래디컬(이상 두란노)>의 데이비드 플랫도 오늘날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계획과 원칙에 대해서는 쉽게 말을 많이 하면서도, 여기에 필요한 능력인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열띤 대화가 사라졌다고 거 들고 있다.

<하나님께 굶주린 삶>도 <십자가를 바라보라>처럼 제목으로 만든 십자가 모양의 표지를 하고 있다.

◆ 짧게 살다 간 인디언 선교사의 ‘순전한 헌신’

예수님의 고난 뿐 아니라, 그를 따라 자신을 온전히 드린 이들의 삶도 고난주간 동안 묵상할 만하다.

생명의말씀사 ‘리폼드 시리즈’ 네 번째 책인 <순전한 헌신>은 미국 식민지 시대 인디언들을 선교하다 29세의 나이에 폐결핵을 앓아 주님 품으로 영원히 떠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David Brainerd)의 선교 일지에 동시대를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의 해설을 덧붙인 책이다.

그는 인디언들 사이 황무지에 거처를 마련하고, 함께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던 일들을 짧게나마 매일 기록했다.

그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통과한 뒤, 많은 인디언 신자들을 얻었고 그들과 더 많은 사역을 일궈나갔다. 먹을 것 없어 며칠을 굶는 일도 다반사였고, 복음을 전하려 가다 깊은 숲 속 땅바닥에 누워 ‘야곱처럼’ 잠을 청하는 날도 적지 않았다.

“삶의 위로를 발견할 수 없는 광야에서는 종종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고, 숲속에서는 종종 길을 잃었으며, 때로는 한밤중에 말을 타고 달려야 했다. 한번은 숲속에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는 나이가 들수록 은혜가 무르익었고, 내면에서 이뤄지는 신앙활동이 더욱 순결해졌으며, 판단력이 더욱 예리해졌다”며 “책을 읽다 보면 우리는 브레이너드가 우울하고 쉽게 의기소침해지는 기질을 타고나 경건한 슬픔과 기독교적 겸손이 우울한 기질과, 젊음의 활기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한데 뒤섞여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이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본보기가 마음과 행위를 통해 드러난 참되고 뛰어난 기독교적 경건의 표상이자 참된 믿음의 실체와 경건의 능력을 입증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많은 집에서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 고난주간 묵상할 도서들

최근에 나온 책들로는 지난해 여름 나온 김남준 목사의 <가상철연(생명의말씀사)>을 비롯해, 분지에서 지난 몇 년간에 걸쳐 고난주간에 소개했던 <갈보리의 그림자>, <죽임 당하신 어린양(이상 지평서원)>, <가장 길었던 한 주(포이에마)> 등은 여전히 다시 펴볼 만하다. 로이 헛슨의 베스트셀러 <갈보리의 그림자>와 그의 신간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상 CLC)>도 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화두’이기에, 우리 시대 대표적인 고전이 된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IVP)>를 비롯해 고난주간 읽을만한 도서들은 위에 언급된 것들 외에도 적지 않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평소 미뤄뒀던 신앙서적을 한 권 들고 조용한 광장에서 무릎 꿇은 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위에 소개된 <십자가를 바라보라(오른쪽)>와 <하나님께 굶주린 삶>. 두 책 모두 십자가 모양의 표지 디자인을 사용했다.



<순전한 헌신>

스 루케이도가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He Chose the Nails)>도 나왔다. ‘쉬운 작가’ 루케이도는 십자가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자신의 경험들을 버무려서 들려주고 있다.

루케이도는 ‘단순한 모양’의 십자가가 왜 우리 믿음의 상징이 됐는지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처럼’ 양육으로 뻗어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위로 향하고 있다”며 ‘십

화났던 순간, 내게 잘못된 사람들의 명단 등 버려야 할 것들을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것을 부드럽게 권유한다.

◆ 존 파이퍼가 말하는 ‘금식과 절제’의 참 의미

지난 15년간 사랑받아온 존 파이퍼(John Piper) 목사의 <하나님께 굶주린 삶(복있는사람)> 개정판이 출간됐

마조히스트의 병적인 쾌락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사람의 뜨거운 추구’라고 말한다. 그는 이를 자신의 아내를 사무치게 사랑했던 경험과 비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먹거나 먹지 않는 일’은 본질이 아니다. 둘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다.

파이퍼는 마태복음 9장 14-17절을 금식에 관한 가장 중요한 성경말씀으

Korea Be Inspired

30주년 기념, 아주투어가 준비한 신년맞이 봄맞이 모국 힐링투어!
 모국의 숨겨진 아름다움과 특별한 내고향 향토음식, 구수하고 해박한 지식의 가이드 3명자를 모두 갖춘 구성입니다. 어릴적 그 모습! 그 옛 일상으로 지친 몸과 마음까지 치유하는 내 고향으로의 멋지고 맛있는 여행길로 초대합니다. 아주투어의 모국 힐링투어로 이만생활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문경제재/단양팔경 추억여행 4일 \$399
 멋자랑! 맛자랑! 출발! 매주 화

문경드라마 세트장/옛길 박물관
문경새재 추억속으로

청남대, 문의문화재단지, 선병국 가옥, 정이품송 소나무, 도담삼봉, 원주 한지테마파크, 이천 도자기마을, 수원화성, 화성행궁

서해투어 조인 가능

진해벚꽃 축제여행 3일 \$199
 30주년 특가! \$249-70
 단 1회! 출발! 4/2

수령 80년이 넘는 벚나무와 38만여 그루의 벚나무
진해 벚꽃 관광

남원 광한루, 중원로타리, 여좌천, 해군기지사령부

동해투어 조인 가능

단양 8경 중 도담삼봉 정경

전해 경화역 정경

논산 친환경 딸기수확체험

관광외길 30년! 아주관광이 새로운 30년을 아주투어로 시작합니다!

US이주투어 213-388-4000
 833 S. Western Ave #35-A, L.A., CA 90005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노드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편리함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빙베어 농축 흑염소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하약 보장,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K7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번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에 의한 피해 재산, 부동산, 손실분쟁

입주자분쟁(소송/방어서류)

접근금지 명령/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급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 형법 정부상대 문제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렌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닝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스마트 월드

www.GoSmartworld.com 건강용품 전문점!

FUJIT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타사 전신 인이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3,900.00

로테오 캘러리아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현재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이온 실리온! 자동차 핸들 커버 \$30

즐음 운전 때문에 고통 받는분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손가락 관절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분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사업체 펀딩

Goodnews Business Fund Inc.

\$10,000 당 \$ 575 x 20 주 = \$11,500.

Processing Fee \$500.

간단한 서류, 신속한 결과!

TEL (323) 334-6533

로템

웹디자인

쇼핑몰, e-commerce, cms 웹사이트, 온라인 배너, 웹사이트 유지 및 보수

그래픽디자인

명함, 브로셔, 신문/잡지 광고, 배너



Rodem N. Hwang Designer

213-587-3498

kp.rodemh@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와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칼라카피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SUPER STORE 푸엔테힐스 현대



“귀하를
푸엔테힐스 현대로
초대합니다.”



8스피드의 넘치는 힘과 럭셔리한 중후감을 느껴보세요!!

2013 EQUUS Signature

\$539

+TAX (STK. 066759)

48Month lease /12k mile/ T.D.O 4,999

MSRP \$60,170

PH HYUNDAI D/C \$5,359 LEASE CASH \$1,500
COMP. REBATE \$1,0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2013 SONATA GLS

2013 ELANTRA GLS



36Month lease /12k mile/ T.D.O 2,999

MSRP \$22,770

PH HYUNDAI D/C \$1405 LEASE CASH \$1,500
COMP. REBATE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125

+TAX (STK. 693375)

36Month lease /12k mile/ T.D.O 3,999

MSRP \$19,350

PH HYUNDAI D/C \$945
COMP. REBATE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115

+TAX (STK. 729686)

브라이언 리
858.337.3993

빅터 최
626.482.0681

스티브 장
626.513.4006

제니 김
626.513.4683

찰리 정
626.513.4981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WWW.PHHYUNDAI.COM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